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프랑스어 주어인칭대명사  
어휘 기능 연구

- 언어변화이론을 중심으로 -

L'étude sur les pronoms personnels sujets  
: pour une théorie du changement  
linguistique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어학전공  
윤지영

프랑스어 주어인칭대명사

어휘 기능 연구

- 언어변화이론을 중심으로 -

L'étude sur les pronoms personnels sujets

: pour une théorie du changement

linguistique

지도교수 장 재 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어학전공

윤 지 영

윤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2월

위 원 장 \_\_\_\_\_ 최윤선 (인)

부위원장 \_\_\_\_\_ 이만기 (인)

위 원 \_\_\_\_\_ 장재성 (인)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언어변화이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주어인칭대명사<sup>1)</sup> 어휘 의미·기능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어 pps는 오랜 시간동안 여러 언어학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간의 연구들에서는 대개 한 측면에서만 pps를 관찰하였기에 pps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프랑스어 pps의 의미와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통시적·공시적이며 범언어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에서 pps를 관찰한다. 또한 pps의 용법이 변화한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언어 변화 양상의 보편적 원리로부터 프랑스어 pps 용법 변화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할 것이며, 이 새로운 제안을 토대로 프랑스어 pps가 동사활용의 어말음 대체요소로 나타난 수·인칭 표지자가 아닌 독립적인 언어적 기능과 의미를 갖는 요소임을 밝힌다.

명시적 주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대부분의 로망어와 달리 프랑스어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의 주어자리에 명사 및 인칭대명사가 사용된다. 몇몇의 연구자들은 pps에 명사구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현대 프랑스어 pps를 라틴어와 고대 프랑스어의 동사활용접사에 비견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 프랑스어 pps가 고대 프랑스어 시기의 동사활용접사 약화의 결과로 수·인칭 표지자로서 사용되었다는 일반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 프랑스어는 일반 명사와 달리 접어의 속성을 보인다. 일반 명사와 대조되는 프랑스어 pps의 통사속성은 pps를 수·인칭 표지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프랑스어 pps가 고대프랑스어 동사활용 접사를 대체하는 수·인칭 표지자라는 견해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먼저, pps는 문장의 주요성분인 ‘주어’로서 문장의 머리가 되는 성분이

---

1) 본 논문에서는 주어인칭대명사를 PPS(Pronom personnel sujet)로 약칭한다.

다. 동사접사는 문법요소로서 의미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 주요성분인 주어와 문법요소인 동사접사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모순점을 갖는다.

다음으로 동사의 일치자질과 pps의 용법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스위스 로망드어 및 이탈리아 북부방언은 영주어 언어 nul sujet에서 pps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언어로 변모했지만 풍부한 동사 일치표지는 마모되지 않았다.

위의 문제를 토대로 프랑스어 pps의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대 프랑스어 pps는 고대 프랑스어시기에 발생한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한 동사활용접사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까?
2. 현대 프랑스어에서의 의무적인 pps의 사용은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지 않을까?

먼저, 음성적, 생성문법의 통사적 설명을 살펴본다. 이 설명들은 차이를 갖지만 동사 어미의 일치자질의 손실과 주요하게 결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선호도에 의한 사용으로 pps 용법 변화를 설명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Vance&Sprouse(1999)는 Kroch(1979)의 경쟁원리를 따라 pps 용법 변화를 설명한다. 영주어 형태는 명시적 형태의 pps와 경쟁 상태에 있었으며, 명시적 pps의 잉여적 정보로 인해 명시적 pps가 영주어보다 선호되었다. 그 결과로서, pps 사용이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어 pps 용법 변화를 습득의 최적화에 의한 선호도로 설명한 Vance&Sprouse(1999) 및 Lafond(2003)의 제안이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한다.

다음으로 언어변화의 보편원리에 따라 위의 제안의 결핍을 보충하고자 단순화원리와, 의미형태일치원리를 통해 pps 용법 변화 원인을 추정한다. 한 단어의 형태로 주어와 동사를 표현하는 영주어 형태보다, 주어를 요구하며 단순화된 굴절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의 의미 형태

일치 차원에서 언어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언중의 변화와 언어변화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pps 용법 변화의 설득력을 높인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언어 변화의 요구도 동반된다. 시민계층의 성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언어사용 환경과 언중의 변화가 발생했다. pps 용법의 변화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유인되었다.

마지막으로 pps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적 층위에서 접어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며 실은 실증적 어휘기능을 갖는 통사성분임을 확인한다. Chafe(197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사가 일치하는 것은 주어로서 굴절은 주어에 의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주어로서 pps를 동사의 수·일치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어** : 영주어 언어, 고대 프랑스어, 프랑스어 주어 인칭대명사, 언어 변화

**학 번** : 2011-23086

# 목 차

국문초록 .....	i
서론 .....	1
<b>I. 기능범주로서 PPS .....</b>	<b>8</b>
1.1 pps 접어속성 .....	8
1.2 주어로서 pps .....	12
1.2.1 보편문법의 주어속성: 확대투사원리 .....	12
1.2.2 pro-drop언어 .....	13
1.2.3 pro-drop과 일치 자질과의 상관관계 .....	17
1.2.4 pro-drop어 매개변인 .....	19
<b>II. PPS 용법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b>	<b>22</b>
2.1 전통적 설명 .....	22
2.1.1 어말음 손실 : Foulet(1935) .....	23
2.1.2 SV어순 : Franzén(1939) .....	26
2.1.3 V2리듬 체계 : Wartburg(1934,1963) .....	28
2.2 생성문법의 매개변인 변화 설명 .....	31
2.2.1 보어절 SVO어순의 영향 : Adams(1987) .....	31
2.2.2 'pro'인식 조건 변화 : Roberts(1993) .....	37
2.2.3 'pro'위치 변화 : Vance(1997) .....	42
2.3 선호도원리 설명 .....	43
2.3.1 경쟁관계 가설 : Vance&Sprouse(1999) .....	43
2.3.2 최적성 이론 : Lafond(2003) .....	46

<b>Ⅲ. 언어변화 양상을 통한 PPS기능 재해석</b>	<b>51</b>
<b>3.1 언어단순화</b>	<b>51</b>
3.1.1 효율성원리	52
3.1.2 투명성원리: 의미·형태 일치 원리	54
<b>3.2 통합적 체계에서 분석적 체계로의 교체</b>	<b>55</b>
3.2.1 인도유럽어의 분석적 체계 변화 예	57
3.2.2 분석적 체계의 pps	58
<b>3.3 언중변화에 의한 PPS기능 변화</b>	<b>61</b>
3.3.1 프랑스 언중의 변화와 PPS사용과의 관련성	61
3.2.2 언중변화에 따른 PPS사용의 예	62
<b>Ⅳ. 실증적 어휘기능으로서의 PPS</b>	<b>71</b>
<b>4.1 실증적 의미 및 기능</b>	<b>71</b>
4.1.1 조용의 기능	72
4.1.2 사회적 매개 기능	72
4.1.3 주체성 실현 매개	74
<b>4.2 명시적 PPS 접어 속성 설명</b>	<b>77</b>
4.2.1 음성층위 접어	77
4.2.2 빈도에 의한 접어화	79
4.2.2 북부 이탈리아 방언의 접어 비교	82
<b>결론</b>	<b>87</b>
<b>참고문헌</b>	<b>90</b>
<b>불문요약 Résumé</b>	<b>102</b>



# 서론

이 글은 언어변화이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주어인칭대명사<sup>2)</sup>의 의미·기능 연구를 목표로 한다. 프랑스어는 로망어 중 라틴어에서 가장 많이 변모된 언어이다. 라틴어와 프랑스어는 음성체계에서부터 형태·어휘 및 문장구조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명시적 주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대부분의 로망어와 달리 프랑스어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1) a. Latin : dormio
- b. Italien : dormo (io)
- c. Espagnol : duermo (yo)
- d. Français : **Je** dors

라틴어는 문장구성성분의 기능을 표지하는 격체계를 갖기 때문에 고정적인 어순이 없어 주어의 위치가 자유로우며 대명사의 경우 대부분 생략되었다. 고전 라틴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동사SOV이었으나 구어 라틴어 말기에 이르러서는 주어·동사·목적어SVO어순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어순의 변화는 라틴어의 격체계가 동사를 축으로 한 위치를 통해 문장 구성성분의 기능을 부여하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현대 프랑스어에서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는 변화했지만 주어는 변동 없이 화자와 청자에게 가장 먼저 인지되는 문장의 머리 역할인 문장의

---

2) 본 글에서 주어인칭대명사를 PPS(Pronom personnel sujet)로 약칭한다.

앞자리에 위치한다<sup>3)</sup>. 현대 프랑스어에서 부사구 뒤 혹은 인용구, 의문문에서 도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어는 항상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의 주어 자리에는 명사, 인칭대명사가 사용된다.

2) a. *Pierre aime Marie*

b. *Il aime Marie*

두 문장은 동일한 주어·동사·목적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2b)의 pps *Il*은 2a)의 고유명사 *Pierre*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pps에 명사구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라틴어와 고대프랑스어의 동사활용접사에 비견한 요소로 간주한다<sup>4)</sup>.

프랑스어 pps가 동사의 일치 접사와 더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 중 Auger(1993, 1995)는 주어인칭대명사 및 접어대명사를 형태소로서 동사의 일치접사와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 Auger(1995)는 “*Pierre il mange une pomme*”의 문장을 좌치된 문장left dislocation<sup>5)</sup>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pps *il*을 동사의 일치접사로 분석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Touratier(1989)도 pps를 주어의 의미를 갖지 않는 동사 접사

---

3) Dryer(2005)가 1228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어순을 조사한 연구에서 SVO 어순과 SVO 어순을 사용하는 언어는 89.3%로, 이에 따르면 자연언어에서는 주어가 문장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4) cf. Darmesteter (1877) et Diez (1871) Vanelli (1987), Renzi (1992), Auger (1993,1994), Zribi-thertz(1994) Bally (1932), Harris (1978), Hirschbühler (1971), Hulk (1986), Huot (1987), Kaiser (1994), Lambrecht(1981), Matthews(1989), Miller (1991), Ossipov(1990), Roberge(1990), Rohrbacher (1994), Tesnière (1959),Wartburg (1943)

5) 문장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정의하는 성분이 절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문장 *Pierre, il mange une pomme*를 [Pierre<sub>i</sub> [[il]<sub>i</sub>] [mange]<sub>i</sub> [[une][pomme]]]의 구조로 분석한다.

에 비견한 형태소로 본다. 그는 “ils la connaissent bien”의 문장을 SV가 아닌 V 구조로 보며 pps *ils*을 V의 직접성분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입장은 고대프랑스어 시기의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하여 pps가 그 대체 수단인 수·인칭 표지자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을 토대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프랑스어 pps는 일반 명사와 달리 접어의 속성을 보인다. 일반 명사와 대조되는 프랑스어 pps의 통사속성은 pps를 수·인칭 표지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프랑스어 pps가 고대프랑스어 동사활용접사를 대체하는 수·인칭 표지자라는 견해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고대 프랑스어에서 나타난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고대 프랑스어 pps의 주요한 특징으로 주절에서 pps는 빈번하게 생략되지만 보어절에서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 3) Einsi coururent \_\_\_\_\_, par mer tant que il; vindrent à Cademelée  
Ainsi ont couru (ils), par la mer tant qu'ils sont venus à Cademelée  
(Villehardouin XXV; Adams1986)

고대 프랑스어 보어절 pps의 사용은 어말음이 소실되기 전인 초기 고대 프랑스어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고대 프랑스어와 대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 언어들 양상은 화용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따라서 동사 어말음 손실의 설명만으로 고대 프랑스어 주절과 보어절 pps사용의 비대칭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pps는 문장의 주요성분인 ‘주어’로서 문장의 머리가 되는 성분이다. 동사에 일치자질을 부여하는 일치핵 논항은 주어이다<sup>6)</sup>. 동사활

---

6) le sujet comme l'élément qui impose ses marques d'accord au verbe avec

용접사는 문법성분으로서 어휘의미 기능이 없다. pps를 동사 접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주어로서 pps의 속성이다. 주어는 문장의 주요성분으로서 단순히 수·일치 정보만을 지닌 성분이 아니다. pps는 주어의 기능을 하며 동시에 주어의 수·일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주요성분인 주어가 문법요소인 동사접사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모순점을 가진다.

더불어 동사의 수·인칭 일치자질과 pps의 의무적 용법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7).

스위스 로망드어 및 이탈리아 북부방언은 영주어 언어nul sujet<sup>8)</sup>에서 pps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언어로 변모했지만 풍부한 동사 일치표지는 마모되지 않았다. 독일어의 경우 동사 일치자질이 풍부하지만 비인칭 구조와 주제Topic자리에서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9).

마지막으로, 현대 프랑스어 pps를 일치표지자로 간주한다면 프랑스어는 영주어 언어이다. 따라서 다른 영주어 언어와 공유하는 속성을 나타내야 하지만, 영주어 언어와 구분되는 속성을 보인다. 영주어 언어는 자유도치가 가능하며 주어가 문장 마지막에 올 수 있다. 주어 접어를 수·인칭 일치자로 파악하는 이탈리아 북부 방언은 모든 동사 부류와 주어가 어떠한 제약 없이 도치 가능하다<sup>10)</sup>. 한편 현대프랑스어의 경우 의문형 혹은 인용문과 같은 경우에 도치가 제한되어 있다.

---

lequel entretient des conrantes d'ordre '주어는 제한된 어순을 따라 동사에 일치 표지를 부여하는 성분이다.'(Tammine1988)

7)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는 동사에 수·인칭 표지 체계가 없지만 영주어 구조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8) 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언어로 생성문법에서는 pro-drop이라고도 한다.

9) a. Schlafst du? (자니?)

b. Nein, \*(ich) schlafe noch nicht (아니, 아직 안 자)

독일어 문장 a의 주어는 주제 자리에서 생략 가능하지만 b의 주어는 생략 불가능하다.

10) cf. Suñer(1992), Brandi&Cordin(1989), Rizzi(1982)

위의 문제를 토대로 이 글에서 다룰 프랑스어 pps의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대 프랑스어 pps는 고대 프랑스어시기에 발생한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한 동사활용접사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까?
2. 현대 프랑스어에서의 의무적인 pps의 사용은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지 않을까?

위의 논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프랑스어 pps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언어학 분야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 측면에서만 관찰되어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계점을 보여 왔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프랑스어 pps가 실증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 어휘소임을 규명하기 위해 통시적·공시적이며 범언어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pps의 용법이 변화한 근본적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언어 변화의 보편적 원리로부터 프랑스어 pps 용법 변화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프랑스어 pps가 동사활용의 어말음을 대체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 수·인칭 표지자가 아닌 주어로서의 고유의 기능과 주체적 의미를 갖는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

11) 대표적인 pps 연구로 Foulet(1935, 1936 『L'extension de la forme oblique du pronom personnel en français』 Romania61, 63)는 13세기의 산문 Villehardouin의 Chronique와 Queste del saint Graal에서 pps의 화용적 의도를 배제한 용법을 확인하였다. 현대 연구 중에는 V2제약과 어순 등의 매개변인과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한 Adams(1986,1987), Roberts(1993), Barbara(1999)가 있다.

위의 목적을 바탕으로 이 글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pps의 논점이 되는 근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Kayne(1975)이 제시한 바를 토대로 pps의 접어 속성을 살펴본다. pps는 음성적, 통사적으로 자율성이 부족하며 동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성분으로 명사주어와 구분된다. 다음으로 pps의 다른 주요특징인 주어로서의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편원리에서 주어를 살펴보며 영주어 pro-drop과 일치자질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pro-drop이 일치자질로 인한 식별에 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pro-drop의 전제조건이 풍부한 일치자질이 아님을 밝힌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프랑스어 pps 용법 변화의 설명을 살펴본다. 음성적 설명 및 통사적 설명과 최근 연구의 설명을 살펴본다. 먼저 음성적 설명은, 동사활용 접사의 어말음 손실로 인해 pps가 대체 수단으로서 수·인칭을 표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통사적 층위에서, 생성문법의 매개변인 원리로 어린이와 학습자들의 학습으로 인해 매개변인이 변화되어 pro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연구에 속하는 경쟁가설원리 및 최적성 이론에서는 영주어보다 명시적 주어 overt sujet의 사용이 선호되어 명시적 주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보편적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pps의 용법 변화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언어가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된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따르며, Hawkins(2003)의 효율성 원리로 형태가 최소화 되었을 때 효율성이 높다는 가설을 따른다. 또한 Lightfoot(1999)이 제시한 투명성 원리로 형태와 의미가 일치될 때 효율성이 높다는 원리를 따른다.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단순화의 노력을 프랑스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설

명한다. 프랑스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언어들을 근거로 사회구조 변화와 언어변화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pps가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단순화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음을 드러낸다.

4장에서 현대 프랑스어 pps의 어휘기능을 통사 및 화용 차원에서 밝힘으로써 3장의 새로운 제안을 정당화한다. pps는 주어로서 동사에 일치성분을 부여하는 핵이다. 화용 측면에서 pps는 다른 단어로 대체될 수 없는 성분으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성분이다. 이를 토대로 Kayne(1972)이 제안한 음성적 접어로 현대프랑스어 pps의 접어적 속성을 설명한다. Kayne(1972)이 제안한 바와 같이 pps는 표층구조에서 접어화 되는 음성적 접어이며 단지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표층구조에서 접어화 되었음을 밝힌다.

결론부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 pps는 프랑스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하여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언어 단순화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pps는 다른 단어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요소이다.

# I .기능범주로서 PPS

이 장에서는 먼저 대표적 논점이 되는 pps의 접어 속성을 살펴본 후에, pps의 또 다른 속성인 주어로서의 pps를 살펴보고, 주어 생략과 일치자질과의 상관관계를 보편문법의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1 pps 접어 속성

프랑스어 pps의 접어속성은 pps를 명사구 주어와 구분되는 기능범주로 제한한다. pps는 대표적 접어대명사인 보어인칭대명사와 음성·통사적으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Kayne(1975)은 보어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접어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접어 기준을 토대로 pps의 접어 성격을 밝힌다. 다음은 Kayne(1975)이 제시한 pps의 접어 속성이다.

1) pps와 동사 사이에는 접어를 제외한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없다.

a.\*il, paraît-il, est fou

\*il, souvent, mange du fromage

b. Jean, paraît-il, est fou

Jean, souvent, mange du fromage (Kayne, 1975)

1a)에서 보듯이 pps *il*과 동사 *est, mange* 사이에 부사 *paraît-il, souvent*이 삽입될 때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반면, 고유명사 *Jean*과 동사사이에는 부사가 삽입가능하다.



2) 수식이 불가능하다.

a.\*ils tous partiront bientôt

\*ils deux partiront bientôt

b. tous les garçons partiront bientôt

les deux garçons partiront bientôt (Kayne, 1975)

2a)의 pps *ils*은 양화사 *tous*와 수형용사 *deux*로 수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 명사구 주어 *les garçons*은 수식이 가능하다.

3) 등위접속이 불가능하다.

a.\*Jean et il partiront bientôt

\*il et Jean partiront bientôt

\*il et elle partiront bientôt

b. Jean et lui partiront bientôt (Kayne, 1975)

3a)의 pps *il*은 pps *elle*, 고유명사 *Jean*과 등위접속 될 수 없지만, 강제형 대명사 *lui*는 등위접속이 가능하다.

4) pps는 강제형 대명사와 달리 음성 강세를 받지 못한다.

a. lui partira le premier

b. \*il partira le premier (Kayne, 1975)

4a)의 강제형 대명사 *lui*는 음성 강세를 받지만, 4b)의 pps *il*에는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다.

5) 복수 명사구 주어의 *s*는 그 뒤에 오는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항상 분절되어 조음되지만, pps 복수 *s*는 분절되지 않는다.

a. mes amis iront à Paris

[amiir]

\*[amizir]

b. ils iront à Paris

[i(l)zir]

\*[ilir] (Kayne, 1975)

pps *ils*의 *s*는 동사 *iront*의 모음 *i*와 연음되어 발음되지만 복수 명사 *amis*의 복수 *s*는 분절되지 않는다.

6) 문체상의 도치 *inversion stylistique*에서 NP주어는 동사와 도치가 허용되지만 pps는 이러한 구조에서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a. Je sais très bien à quelle heure partira ce garçon.

b.\*Je sais très bien à quelle heure partira-t-il (Kayne, 1972)

6a)의 경우 명사구 *ce garçon*이 동사 *partira*와 도치 가능하지만, 6b)의 pps *il*은 동사와 도치되지 않는다.

7) 접어도치 구조에서는 pps만이 도치가 가능하다.

a. partira-t-il?

b.\*partira ce garçon? (Kayne, 1972)

7a)의 pps *il*은 동사 *partira*와 도치가 가능 하지만, 고유명사 *Jean*은 단

순 도치가 불가능하다.

8) 복합도치 *inversion complexe*의 경우 명사구 주어는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며 그에 상응하는 pps가 동사와 도치되어 나타난다.

a. *pourquoi Jean est-il parti?* (Kayne, 1975)

8)의 의문문의 구조에서 고유명사 *Jean*은 주어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동사 *est*에 pps *il*이 종속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pps는 명사구 주어와 달리 음성적·통사적 자율성이 부족하여 동사에 인접해야 하며 독립적 음성단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음성, 통사 측면에서 pps는 명사구 주어보다는 보어 접어 대명사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어 속성은 pps를 기능범주인 동사의 수·인칭자질로 간주하는데 힘을 실어 준다.

## 1.2 주어로서 pps

프랑스어 pps는 대명사로서 접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pps가 주어<sup>12)</sup>라는 점이다. pps의 논점이 되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편문법에서의 주어 속성을 파악한 후 주어와 일치자질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

12) 전통문법에서 주어는 문법, 형식 주어와 논리적, 개념적 주어로 구분한다.

## 1.2.1 보편 문법의 주어 속성 : 확대투사원리

지배결속, 매개변인이론, 최소주의로 대표되는 생성문법에 따르면 주어는 주격을 점검받고 할당받으며 일치자질을 충족하기 위해 이동한다. 따라서 SVO언어는 명시어-핵 체계에서 격을 점검받고 할당받으며 또한 일치자질을 충족시킨다. 프랑스어는 INF13)에서 격을 할당받는데 주격을 할당받기 위해 주어는 문장의 앞자리에 나타난다.

Chomsky는 모든 절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PP14)를 제시한다. 모든 정형절에 주어가 의무적으로 나타나며 허사 주어를 사용하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경우 EPP언어에 포함된다.

Chomsky가 보편원리universal grammar로 제시한 EPP에 따르면 모든 정형절은 주어를 가진다고 상정되지만, 주어가 절에 항상 명시적이지 않은 언어들도 다수 있다. EPP원리는 주어가 명시적이지 않은 언어들 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pro가 주어자리에 채워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언어를 영주어 pro-drop/null subject언어라고 하며 이는 EPP원리를 정당화한다.

Giligan(1987)은 100개의 언어를 검토하였는데 이 중 11개의 언어만이 주어가 생략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언어가 주어 생략이 가능하다. 주어가 생략되는 언어를 유형별로 살펴본 후, 주어 생략이 가능한 언어들 이 일치자질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3) INFLECTION으로 생성문법에서 시제 일치를 위해 굴절되는 성분이 차지하는 범주이다.

14)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의 약칭으로 모든 시제절(TP)은 명시어(Specifier)를 가져야 한다는 원리로, 다시 말하면 모든 시제절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

## 1.2.2 pro-drop언어<sup>15)</sup>

라틴어와 라틴어에서 파생된 대부분의 로망어는 주어 생략 가능한 영주어 언어이다.

- 9) a. Parla italiano (italien)
- b. Habla español (espagnol)
- c. \*Speaks English (anglais)
- d. \*Parle français (français)

9c,d)의 문장은 주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문장으로 'He speaks English', 'Il parle français'의 문장이다. 이 문장들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지 못한다. 한편, 9a,b)는 로망어 중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의 예로 'Lui parla italiano', 'El habla español'의 문장이다. 이들 언어에서는 동사 3인칭 단수 굴절접사 *a*에 의해 주어가 파악되며 pps는 탈락된다.

영주어 언어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음성적 층위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주어 언어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동사의 수인칭 일치자질에 의해 모든 인칭에서 주어가 탈락 한 언어와, 부분적으로 제한된 인칭에서만 탈락되는 부분 영주어 partial pro-drop 언어, 문맥적 요소에 의해 주어가 생략 가능한 영주어 언어로 구분되는 것이다.

정형질의 모든 인칭에서 주어가 탈락 가능한 언어 형태로는 라틴어를

---

15) pro-drop은 Chomsky의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1981)"에서 주어 탈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pro 영주어 형태로 격점검 원리에 의해 주격을 점검받는 것으로 주어가 일치자질 및 문맥 등의 지배 및 인식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나타난다. 영주어를 허용하는 언어를 pro-drop언어라고 한다.

포함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어의 대부분이 대표적이며, 그리스어와 터키어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동사활용 형태가 풍부하여 인칭과 수의 변별자질이 충족되기 때문에 음성층위에서 주어가 탈락되어 나타난다.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 그리스어, 터키어의 ‘말하다’ 동사의 동사변화의 예를 살펴보자.

《표1》 영주어 언어 ‘말하다’ 동사활용표

	a. 스페인어	b. 그리스어	c. 터키어
1s	hablo	λέω	konusuyorum
2s	hablas	λες	konusuyosum
3s	habla	λέει	konusuyor
1pl	hablamos	λέμε	konusuyoruz
2pl	habláis	λέτε	konusuyorsunuz
3pl	hablan	λέυε	konusuyorlar

위의 《표1》에서 보듯이 스페인어, 그리스어, 터키어의 동사활용의 굴절접사들은 각각의 수·인칭별로 다른 형태와 발음을 가진다. 이 언어들은 동사어미의 변별자질에 의해 주어 정보가 제공되며 주어는 조음 시에 탈락되어 실현된다. 의미역 주어 탈락을 허용하는 언어들은 수·인칭마다 구별되는 굴절 어미의 일치자질을 가진다.

부분적 영주어partial pro-drop언어는 전 인칭이 아닌 특정 인칭에서만 pps가 탈락되는 언어이다. 핀란드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 북부 방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언어들도 몇 인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칭에서 변별적인 수·인칭자질을 갖는다.

아래 예는 3인칭 주어의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핀란드어의 경우이다.

- 10) a.(Minä) puhun englantia  
 I speak-1sg English  
 b.(Sinä) puhut englantia  
 You speak-2sg English  
 c.\*(Hän) puhuu englantia  
 He/she speak-3sg English  
 d.(Me) puhumme englantia  
 We speak-1pl English  
 e.(Te) puhutte englantia  
 You speak-2pl English  
 f.\*(He) puhuvat englantia  
 They speak-3pl English (Holmberg, 2005)

10)의 핀란드어에서 동사는 6개의 인칭으로 구분되어 굴절된다. 이때 1,2인칭 단수·복수에서는 주어가 의무적이지 않지만, 3인칭 단수·복수에서는 주어의 사용이 의무적이다.

다음으로 의미역 주어의 경우 생략하지 못하며 허사 주어의 생략만을 허용하는 언어들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어가 있다.

- 11) a. Él/Ø dijo que Ø mató al perro  
 (Il dit que tué le chien)  
 b. Él/Ø dijo que Ø le parece que Juan mató al perro  
 (Il dit que lui semble que Juan a tué le chien)
- 12) a.\*Er sagte, dass den Hund getötet hat  
 (Il dit que le-Acc chien tué a )

b. Er sagte, dass ihm scheint, dass Hans den Hund getötet hat  
(Il-Nom dit que lui-dat semblait que Hans le-Acc chien tué a)  
(Osvaldo Jaeggli & J. Safir, 1989)

11)의 예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는 의미역 주어와 허사 주어가 모두 생략 가능하다. 반면 12)의 독일어의 경우 허사주어를 탈락할 수는 있지만 의미역 주어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12a)의 보어절에서는 의미역 주어가 생략되어 비문이지만, 12b)의 경우 'ihm scheint'는 허사주어가 사용되는 절로, 허사주어의 탈락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맥적 요소에 의해 주어가 생략되는 언어들이 있다. 이 언어들에서는 주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명사논항의 삭제가 가능하다. 대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동사 일치요소가 없다.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은 동사활용을 하지 않지만 주어를 의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 언어들은 대개 선행사 혹은 문맥적인 요소에 의해 추정 가능한 요소가 생략될 수 있는 문맥 의존적 언어들이다.

13) (너) 밥 먹었어?

응, (나) 밥 먹었어

13)의 한국어 예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인칭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어미가 동일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어미에도 불구하고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문맥으로 주어가 파악된다.

이제 영주어 언어가 수·인칭의 일치자질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



펴보자.

### 1.2.3 pro-drop과 일치 자질과의 상관관계

Rizzi(1982)와 다수의 연구자들은 영주어 언어의 대표 속성으로 동사 일치자질의 풍부한 굴절을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동사의 굴절요소 INFL가 주어가 생략되는 것을 허가하며 이러한 영형태소의 주어는 “pro”라고 지칭된다.

Rizzi(1986)의 연구자들은 pro는 주어의 자질을 가지며 주격을 할당받지만 음성층위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 굴절 체계의 일치자질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서이다. 식별을 통해 허가조건licensing condition을 충족시켜야만 의미역 주어 및 지시적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sup>16)</sup>.

Rizzi(1986)가 개정한 pro-drop 허가조건 이론<sup>17)</sup>

- (i) Pro must be licensed by a governing head of type X.
- (ii) Pro must be identified by features of X.

술어는 의미역 주어를 선택하며 주어가 탈락되기 위해서는 지시 값이 식별돼야 한다. 식별은 동사 굴절접사의 수·인칭 자질INFL을 통해 이루어지며 동시에 시제T와 INFL이 구조에서 적절하게 위치해야 한다<sup>18)</sup>.

---

16) 허사주어는 단지 허가조건만을 충족시키면 생략이 가능하다.

17) (i) ‘Pro’는 X유형의 지배핵에 의해 허가된다.

(ii) ‘Pro’는 X의 자질에 의해 식별된다.

pro주어의 경우에 INFL은 pro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지배 핵이며 INFL의 일치자질이 pro의 내용을 식별한다. 따라서 INFL은 pro주어의 지배 핵이며 선행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인칭 일치 자질INFL은 ‘pro’의 전제조건이며, 필수조건이다.

한편 명시적 pps사용이 풍부하지 않은 INFL과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형태적으로 일치자질이 풍부하지만 지시적 주어의 탈락이 불가능한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형태소의 동사활용을 갖지만 pps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언어들 예를 보자. 레토로망어는 풍부한 동사 굴절 접사를 갖지만 pps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표2》 레토로망어 두 언어의 ‘노래하다’ 동사활용표(Kaiser, 2009)

	sursilvan		vallader	
1sg	jeu	cont el	eu	chant -
2sg	ti	cont as	tu	chant ast
3sg	el,ella	cont a	el, ella	chant a
1pl	nus	cant ein	nus/no	chant ain
2pl	vus	cant eis	vus/vo	chant aivat/ais
3pl	els,ellas	cont an	els, ellas	chant an

《표2》에서 보듯이 레토로망스어에 속하는 두 언어의 6개 수·인칭에서 형태·음성적으로 동사활용접사가 구분된다.

아이슬란드어는 의미역주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허사주어만 탈락 가능하다.

다음은 아이슬란드어의 ‘말하다’ 동사의 활용표이다.

18) 풍부한 일치 자질 뿐만 아니라 지배 또한 식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Cardinaletti(1997, 2004), Holmberg(2005), Sheehan(2006))

《표3》 아이슬란드어 ‘말하다’ 동사활용 (Platzack, 1981)

1s	segi
2s,3s	segir
1pl	segjum
2pl	segid
3pl	segja

《표3》은 의미역 주어를 부과하는 아이슬란드어가 2,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 5개 인칭의 일치 자질을 구분하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예들을 토대로, 동사 일치의 형태적 풍부함만으로는 영주어 언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어 pps를 동사활용 접사로 파악한다면, 프랑스어는 주어가 탈락된 영주어 언어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프랑스어가 영주어 언어일 가능성을 pro-drop어의 매개변인을 통해 검토해 보자.

### 1.2.4 pro-drop어 매개변인

영주어 현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영주어 매개변인을 동반한다.

(i) 주어 자유도치<sup>19)</sup>: 영주어의 대표적 속성으로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주어가 동사에 후치되어 나타날 수 있다.

- 14) a. È arrivato Gianni (Italian)  
 b.\*Est arrivé Jean (French)  
 c.\*Has arrived John (English) (Roberts, 2007)

19) Brandin 과 Cordin(1989), Rizzi(1982)

14)의 예에서 보듯이 14b,c)의 프랑스어와 영어에서는 주어와 자유롭게 동사에 후치되지 못하는 반면 14a)의 이탈리아어는 영주어 언어로 주어와 도치될 수 있다.

(ii) wh-이동 : Permutter(1971)에 따르면 영주어 언어가 아닌 언어의 정형절 주어는 보문소가 있는 경우 wh-이동을 할 수 없다.

15) a.\*Who did you say that \_\_\_ wrote this book?

b. Chi hai detto che \_\_\_ ha scritto questo libro?

15a)문장의 영어는 영주어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보문소 *that*이 있는 경우에 wh부사인 *who*를 문장의 맨 앞자리로 추출하지 못한다. 한편 15b)의 영주어 언어인 이탈리아어는 wh부사인 *chi(who)*를 문장의 앞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탈리아 북부 방언은 주어 접어를 의무적으로 표지하지만 주어 접어를 수·인칭 일치표지로 파악하며, 이 언어를 영주어 언어로 간주된다. 이탈리아 북부방언에서는 영주어 언어의 매개변인인 자유도치 및 주어의 추출이 가능한 반면 프랑스어의 경우 의문사와 몇 가지 V2 잔존 구조를 제외하면 자유도치와 wh-이동이 불가능하다.

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어 pps는 접어로서 음성적, 통사적 자율성이 부족하며 NP주어와 구분되는 통사 행태를 보인다. 한편 pps사용이 손실된 동사활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pps사용과 동사 일치자질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영주어 언어의 매개변인을 토대로 프랑스어가 영주어 언어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프랑스어가 주어라 탈락된 영주어 언어가 아닌 명시적 주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언어라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프랑스어 pps는 주어로서 파악되며 VP의 구성성분인 일치 표지로는 볼 수 없다.

## II. PPS 용법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 2.1 전통적 설명

고대 프랑스어와 현대 프랑스어는 pps 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일반적으로 pps가 탈락된다.

16) Si firent \_\_\_\_ grant joie la nuit  
so made (they) great joy that night

(Robert de ClariXII; Adams1987)

16)의 고대 프랑스어 문장에서는 3인칭 복수 동사활용접사 ‘ent’가 주어를 식별하여 주어가 생략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생략된 주어의 위치를 동사에 후치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현대 프랑스어는 pps의 의무적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전통적 설명은 동사 굴절접사의 음가가 약화되어 그 대체수단으로 명시적 pps가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고대, 중세, 현대 프랑스어 동사활용 접사의 음성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Kaiser(2009)가 제시한 표이다.

《표4》 프랑스어 현재 직설법 활용 변화표 (Kaiser, 2009)

인칭	고대 프랑스어			중세 프랑스어			현대 프랑스어		
1sg	je,jo,jou,gié	chant	[ø]	je	chant	[ə]	je	chant	[ø]
2sg	tu	chant	es	tu	chant	[ə]	tu	chant	[ø]
3sg	il/ele	chant	e(t)	il/elle	chant	[ə]	il/elle	chant	[ø]
1pl	nos	chant	ons	nous	chant	[ø]	nous	chant	[ø]

2pl	vos	chant	ez	vous	chant	[e]	vous	chant	[e]
3pl	il/elles	chant	ent	ils/elles	chant	[ə]	ils/elles	chant	[∅]

위 《표4》는 고대 프랑스어 시기에 6개의 수·인칭에서 구분되던 동사 활용 접사가 중세 프랑스어 시기를 거쳐 현대에 와서 1·2인칭 복수형을 제외하고 인칭 간의 변별력을 손실한 것을 보여준다.

pps용법 변화에 관한 전통적 설명은, 고대 프랑스어 시기에는 풍부한 동사활용 접사의 변별력으로 인해 음성적으로 생략되어 나타나던 pps가 동사활용 접사의 변별력이 시기를 거쳐 약화된 뒤로는 pps가 의무적인 것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전통적 입장의 설명으로 동사활용접사의 변별자질의 약화와 함께 V2손실, 어순의 변화로 pps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전통적 입장을 검토해보자.

### 2.1.1 어말음 손실 : Foulet(1935)

주어대명사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로 Foulet(1935, 1936)가 있다. 그는 13세기 초에 쓰인 산문인 『Chronique』와 『Graal de Queste del saint』을 분석하여 이 작품들에서 화용적 의도를 배제한 pps 용법을 확인한다.

Foulet(1935)는 12세기에 이미 pps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 없이 통용되었다고 한다. 그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에서는 라틴어에서와 마찬가지로 pps탈락이 가능한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pps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현대 프랑스어 동사활용 접사의 음가 약화에서 찾는다. 동사활용 접사가 지시하던 수·인칭을 지시하기 위해 요청된 대체수단이 pps라는 것이다<sup>20</sup>).

《표5》 로망어 동사활용표 (Foulet, 1935)

라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amo	compro	lodo	aime
amas	compras	lodi	aimes
amat	compra	loda	aime
amamus	compramos	lodiamo	aimons
amatis	compais	lodate	aimez
amant	compran	lodano	aiment

위의 《표5》에서 보듯이 라틴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는 6개의 수·인칭별로 동사 어미가 구분되지만, 프랑스어는 표기상으로 1·3인칭의 단수가 동일하며 발음상으로는 1·2·3인칭 단수, 3인칭 복수가 동일하다.

Foulet(1935)는 프랑스어의 동사활용이 현대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핀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다수를 차지하는 1군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활용은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Foulet(1935)가 밝힌 12세기의 1군 동사활용의 특징이다.

---

20) Il est pour nous désormais assuré que, dans la lanuge parlée du XII<sup>e</sup>, les pronoms je, tu, elle, nous, vous, il, elles sont employés couramment en dehors de toute intention et uniquement pour marquer la personne du verbe. (Foulet1935) ‘12세기 구어에서 대명사 je, tu, elle, nous, vous, il, elles은 빈번하게 의도를 제외하고 오로지 동사의 인칭을 표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 i. 12세기의 활용에서는 1인칭 단수형태가 어말음 e를 갖지 않는다.  
(e.g.chant, aim)
- ii. 2인칭 단수는 s어말음을 가진다(e.g. chantes, aimes).
- iii. 3인칭 복수는 nt로 끝난다(e.g. chantent, aiment)
- iv. 12세기 초부터 3인칭 단수의 활용접사에서 ‘t’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12세기의 동사활용 형태는 일인칭 단수에 ‘e’가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현대의 동사활용 형태와 동일하다. 현대 프랑스어와 12세기 프랑스어의 차이로는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발음되던 것들이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발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2인칭 단수의 ‘s’와 3인칭 복수의 ‘nt’가 발음되지 않으며, 연음될 때에만 분절된다.

다음으로 Foulet(1935)가 제시한 일군동사활용의 변화과정이다.

- i. 1인칭 단수의 ‘e’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3세기 문헌<sup>21)</sup>에서 일인칭 단수의 ‘e’가 발견된다. 대개 구어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12세기 회화에서 이미 일인칭 단수에 ‘e’가 통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e’무음화가 되며 동시에 3인칭 단수의 ‘t’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인칭 단수에 ‘e’가 사용되며 삼인칭 단수에 ‘t’가 발음되지 않아 두 인칭의 발음이 동일해진다.
- iii. 2인칭 단수의 현재 직설법의 경우 ‘s’는 14세기의 자료인 “Miracles de Notre Dame(Gautier de Coincy)”에서 생략된 것을 통해 13세기

---

21) L’Escoufle, Guillaume de Dole(Jean Renart)

에 무음화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Foulet는 고대프랑스가 유지하던 격체계의 곡용이 약화된 이유를 굴절어미 's'음의 탈락에서 찾고 있으며, 12세기부터 동사 굴절의 's'음이 음가를 잃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격의 곡용 굴절접사의 's'음가와 동사활용 굴절의 2인칭 's'음의 상실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iv. 3인칭 복수의 경우 't'음은 's'음보다는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16세기 구어에서는 완전히 무음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도 't'음가의 무음화는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oulet(1935)에 따르면 pps는 기본적으로 항상 동사 앞에 나오지만, 도치되는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나온다. 또한 pps는 고유의 강세를 갖지 않으며, 무강세 pps는 단순히 동사활용접사의 값만을 갖는다고 한다<sup>22)</sup>.

## 2.1.2 SV어순 : Franzén(1939)

Franzén(1939)은 Foulet(1935, 19366)의 연구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Foulet를 비롯한 기존의 설명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Franzén은 동사활용의 어말음 손실로 인해 pps가 의무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동사의 형태에 따라 pps의 사용빈도수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12세기 소설 『Cligès』에서 동사 형태에 따른 pps 사용빈도수를 조사했다. Franzén은 코퍼스 연구 결과를 토대로 pps의 용법은 동사 형태가 아닌 문장의 통사 구조, 즉 절에서의 구성성분 어순에 따라 결정된

---

22) pronom sujet atone qui n'aura de valeur alors que celle d'une simple désinence ..... '약세 대명사 주어는 단순히 어미의 값만을 가진다.' Foulet(1935)

다고 결론 내린다.

Franzén(1939)은 Foulet(1935)가 제시한 동사 어미의 변화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먼저, Franzén에 따르면 2인칭 단수의 '-s'탈락을 Foulet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곡용의 s음이 사라진 것으로부터 2인칭 단수의 's'음이 사라진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는 또한 Foulet가 3인칭의 '-t'의 음가 손실 시기를 추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t'는 더 이른 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본다. 더불어 Franzén은 1인칭과 3인칭은 문맥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사 어미의 음성적 동일성이 pps사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Franzén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Foulet가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Franzén(1939)은 pps의 사용이 고대 프랑스어의 동사변화 어말음 약화에 의해 유인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mais, que, car로 도입되는 대부분의 긍정문에서 보어가 강세를 갖지 않을 때 pps는 명시적이다. 반면 부정문의 경우 pps는 탈락되기도 한다. 13세기부터 pps는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들은 동사활용의 어말음 약화로는 명시적 pps의 사용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pps는 직접담화에서 삽입절에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17) E! Deus, dist il, si forz pechiez m'apresset!...,

(Alexis59; Franzén, 1939)

17)에서 보듯이 Alexis의 시대에 pps의 사용은 삽입절에서 의무적이었다. Franzén(1939)은 *dit*, *fait* 동사의 3인칭 단수 인칭의 활용어미가 먼저 약화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위의 구조에서 인칭 지시는 필

수적이지 않다고 일축한다.

마지막으로 pps는 가장 빈번하게 동사 앞에 사용된다. 이러한 어순은 특히 보어절에서 많이 발견된다. 주절에서 주어가 명사구일 경우에 보어+동사 어순이 우세한 반면, 보어절에서는 pps+동사 어순이 다수를 차지한다.

Franzén(1939)은 주절과 보어절에 따른 주어대명사와 동사의 어순에 관심을 둔다. 그는 13세기 산문인 『Chanson de Roland』, 『Quatre livres des rois』 등의 자료에서 pps의 사용을 조사하여 보어절에서 보어+동사 어순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한다. 그에 따르면 14세기 초기의 『Roman du Comte d'Anjou』에서 주절의 pps 삭제는 거의 인위적인 특질로 변모하였다.

Franzén는 동사변화의 어말음 약화이전에 보어절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pps 사용이 주절에서도 하나의 경향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이후에 동사 어말음 약화는 주어대명사+동사 구조의 일반화를 촉진한 것으로 본다.

### 2.1.3 V2리듬 체계 : Wartburg(1934,1963)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V2구문의 사용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

Wartburg(1934)는 pps사용을 V2리듬체계에 의한 결과로 본다. 그는 V2 제약을 준수하기 위해 강세를 지녔던 pps가 문장의 앞자리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에 따르면 1400년경에 동사활용의 어말음이 탈락되어 동사의 4가지 형태의 발음이 동일해지면서 pps의 사용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Wartburg(1963)에 따르면 일치자질을 표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어는 직설법 현재 동사의 접미사 *-o*, *-i*, *-a* 등을 활용하는 한편, 프랑스어는 *je*, *tu*, *il* 등의 인칭대명사를 활용한다.

Wartburg(1963)는 Frazén(1939)을 바탕으로 Foulet(1935, 1936)의 문제들을 재고하며 다음의 사실들을 지적한다. Wartburg는 Foulet와 Frazén이 고대 프랑스어의 해석을 현대 프랑스어의 관점에서 하였고, 리듬규칙에 의거해서 구절들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문헌에서 문맥과 분리된 예문들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을 지적한다.

Wartburg(1963)는 Froissart의 연대기(14세기)를 발췌해 pps사용에 관한 규칙을 제시한다.

a. pps가 사용되는 경우

i. 강조가 주어질 때

ii. 문장의 첫 요소

iii. 문장이 등위접속사나 관계사(eg. *et*, *car*, *mais*)로 시작하며 주어가 앞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지 않을 때

iv. *que*, *comment* 혹은 형용사+명사 혹은 의문대명사로 문장이 도입되는 직접, 간접 의문문

v. *que*, *dont*, *à qui*의 관계절에서

vi. 종속접속사 *que* 뒤에서

vii. *que*와 함께 구성된 접속사 뒤에서

viii. *que*로 도입되는 비교문에서

ix. *quant*으로 시작할 때

x. *se*(*si*)으로 시작할 때

pps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 i. et, mais 뒤의 주어가 앞의 문장과 동일할 때
- ii. 부사성분으로 문장이 도입될 때
- iii. 문장이 si(et)로 시작할 때

Wartburg(1963)는 고대프랑스어에서 pps의 사용과 V2리듬규칙과의 관련성을 상기시킨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pps사용의 규칙성은 고대 프랑스어의 리듬규칙에 기반을 둔다. 동사가 2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 즉 V2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고대 프랑스어의 문장은 정확한 리듬규칙을 따르며 동사는 문장의 둘째 위치를 차지한다. V2제약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된 첫 성분이 *car*, *quant*, *que*와 같이 첫 자리를 차지하기에 강세가 약한 성분일 때, pps가 문장의 리듬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18) a. *quant vos estez filz Lac li roi*

(*quand vous êtes le fis de Lac le roi*)

(*La mort le Roi Artu* 21; Wartburg, 1963)

b. *Se vos li mandiez*

(*Si vous le rappelez*)

(*Erec* 1257; Wartburg, 1963)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Wartburg(1963)는 동사활용 접사의 어말 음 손실이 pps의 의무적 사용을 유인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동사의 어말음 손실을 pps의 의무적 사용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pps는 단지 접두사로서 일치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며 강세형 대명사를 새로운 대명사로 본다.

Wartburg(1934, 1963)는 pps의 용법은 V2 리듬규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동사 어말음의 음가가 동일해진 현상은 pps 용법의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결론 내린다.

## 2.2 생성문법의 매개변인 변화 설명

Chomsky(1981)에 따르면 하나의 매개변인이 언어를 구분되게 만든다. 그는 언어사용자의 경험의 차이가 문법의 매개변인을 다르게 수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언어사용 환경은 매개변인을 다르게 설정하여, 고정된 주요 문법으로부터 새로운 문법을 유도한다.

20세기 생성 문법론자들은 pps 용법 변화를 매개변인원리와 언어습득을 결부하여 설명한다. 언어 습득은 언어사용을 허용하며, 습득에서 발생한 작은 차이로 인해 점진적인 언어 변화가 유도된다. Lightfoot(1981)에 따르면 학습자의 문법은 언어 환경의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학습자의 언어 환경은 부모세대와 다를 수 있다.

Adams(1987), Roberts(1993), Vance(1997) 등은 한 세대 “n”이 다음 세대 “n+1”로 넘어가면서 매개변인들이 변화되어 언어의 변화가 유인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pro-drop이 고대 프랑스어에서 중세 프랑스어로 오면서 과도기를 겪은 것에 대하여 문장 어순변화 등의 매개변인 변화와 언어습득 환경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설명한다.

### 2.2.1 보어절 SVO어순의 영향 : Adams(1987)

Adams(1987)는 의무적 pps 사용을 V2제약과 관련하여 어순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Adams(1987)는 고대프랑스어에서 보이는 게르만어의 속성인 V2현상을 지적하며 pro-drop 손실과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고대 프랑스어의 pps는 V2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세를 지닌 성분이었다.

19) Tu es or riche et ge sui po proisié

(tu es maintenant rich et je suis pauvre)

(La Charroi de Nîmes 8; Admas, 1987)

19)의 예에서 pps *tu*는 문장의 첫 성분이며, 동사 *es*는 두 번째 성분이다. pps *tu*는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와야 하는 V2를 만족시킨다.

Adams에 따르면 고대프랑스어는 로망스 자유도치가 아닌 영어의 주어 조동사 도치로, 굴절된 동사 혹은 조동사만이 도치될 수 있는 게르만도치를 주절에서 보인다. 이러한 도치 구조는  $V_I^{23}SO$  어순을 결과로 한다.

20) Qui as tu donc aamée?

(Qui as tu donc aimé?) (Eneas847; Adams 1987)

20)은 고대 프랑스어 문장으로 게르만 도치 구조로 조동사 *as*가 주어 *tu*와 도치되었다.

Adams(1987)는 고대 프랑스어의 기저 구조의 어순을 SVO로 파악한다. SVO는 보어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주어가 V2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경우 주절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Chomsky(1986)에서 핵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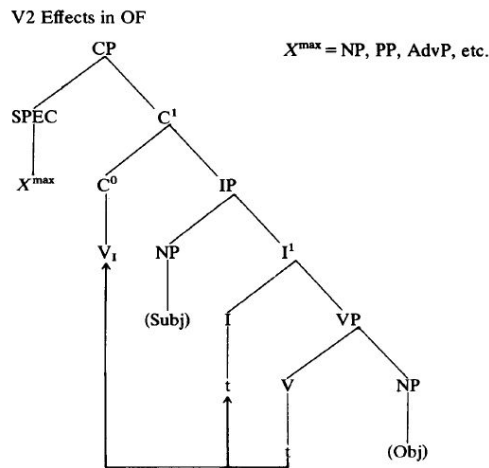
23) Verb inflected



COMP의 핵의 위치로 이동하는 COMP구조를 토대로 고대 프랑스어 파생을 기저의 SVO어순으로 본다.

다음은 Adams(1987)가 제시한 고대 프랑스어 V2 제약을 가진 기저 SVO 어순의 수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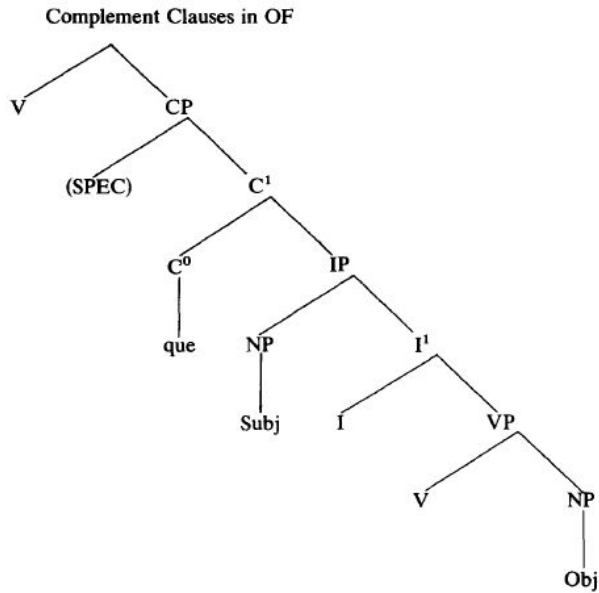
《그림 1》 고대 프랑스어의 V2 기저구조 수형도 (Adams1987)



동사는 먼저 굴절inflection을 획득하는 INFL으로 상승하며 굴절이 결합된  $V_I$ 는 COMP로 이동한다. V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구성 성분이 전치된 동사에 선행해야 한다. 고대프랑스어에서 COMP의 SPEC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최대투사에 제약 없이 명사구NP, 형용사구ADJP, 부사구ADVP, 전치사구PP등이 올 수 있다. 이러한 V2 파생의 분석은 보어절에서 V2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은 고대프랑스어에서 보어절 파생을 나타내는 수형도이다.

《그림2》 고대 프랑스어 보어절 수형도 Adams(1987)



《그림2》는 보어절에서는 이미 COMP의 핵이 보문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사가 전치되지 못하므로 V2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설명은 고대 프랑스어의 주절과 보어절에서 V2에 대해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을 설명한다.

《그림1》의 구조에서 SPEC에 부사구가 나타난다면 COMP의 핵이 비게 되며 V<sub>I</sub>가 그 자리로 이동한다. 이러한 배열에서 영주어가 나타나거나 혹은 굴절된 동사V<sub>I</sub>를 명사구 주어가 따른다.

다음은 Adams(1987)가 제시한 고대 프랑스어 예문으로 부사구가 문장의 첫 성분으로 오며 V2를 만족시킨다.

21) a. [Adv[V<sub>I</sub>[pro t<sub>i</sub>...]]]

Par desus seelerent \_\_\_\_\_ une pierre...  
on top fixed (they) a stone...

(Roman du Graal; Adams, 1987)

b. [Adv[V<sub>I</sub>[NP t<sub>i</sub>...]]]

Et lors se porpensèrent li Grieu d'un mult grant enging

And then contemplated the Greeks of a very great plan

(Villehardouin XLVII; Adams, 1987)

21a, b)는 각각 부사구가 첫 성분이며 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성분으로 오는 V2의 문장이다. 그런데 21a)에서는 pps *ils*이 탈락되는 반면, 22b)에서는 명사구 주어 *li Grieu*가 동사 *se porpensèrent*에 후치되어 나타난다.

보어절에서는 접속사 혹은 보문소가 COMP의 핵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V<sub>I</sub>가 전치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pps는 일반적으로 생략되지 않는다.

22) ...[que[NP V...]]

...[que[il le cuidoit bien garir...]]

that he him belived well recovered

(La Mort le Roi Art21; Adams. 1987)

22)에서 보듯이 문장은 보문소 *que*로 시작하고, 동사 *cuidoit*는 전치되지 않으며, 주어인 pps *il*는 생략되지 않는다.

Adams(1987)에 따르면 고대프랑스어에서 영주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V<sub>I</sub>전치와 V2이다. 따라서 영주어는 대개 주절에서 나타나며, 주절에서 V<sub>I</sub>전치와 V2가 발생한다. 보어절에서는 V<sub>I</sub>전치와 V2가 발생하지 않으며 pps는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영주어와 V<sub>I</sub>전치와 V2와의

상관관계를 pro의 지배방향으로 설명한다. 즉 INFL이 pro를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으로 지배해야 한다. 지배 방향은 매개변인으로, 첫머리 head first언어에서 지배는 오른쪽으로 이루어진다. 지배를 위해 주어가 VP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동사가 주어의 왼쪽으로 이동한다. 프랑스어에서는, 주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로망스 도치를 하는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와 달리, V<sub>1</sub>가 전치되어 지배를 획득한다.

Adams(1987)는 Rizzi(1986)가 제안한 pro-drop이론을 수정한다.

다음은 Adams(1987)가 제시한 Pro-drop이론이다.

Theory of Pro-drop<sup>24)</sup> (Adams, 1987)

a. The position and content of pro must be identified.

(i) The position of pro is identified by a governing head.

(ii) The content of pro is identified by coindexation with the proper features.

b. Government of pro(ai) must be in the canonical direction.

이 이론에 따르면, 주어가 pro인 경우에 INFL은 pro의 위치를 식별하는 핵이며, INFL의 자질(일치자질AGR)은 pro의 내용을 식별한다. 따라서 INFL은 지배자인 동시에 pro 주어의 선행사이다.

Adams(1987)는 보어절뿐만 아니라 주절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SVO어순이 V2구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노출된 주절의 SVO(V2)어순으로 인해 보어절의 SVO어순을 기본구조로

---

24) a. 'pro'의 위치와 내용은 식별되어야 한다.

i. 'pro'의 위치는 지배 핵에 의해 식별된다.

ii. 'pro'의 내용은 고유 자질과 공지시되어 식별된다.

b. 'pro'은 적절한 방향으로 지배되어야 한다.

재구조화한다.

Adult grammar 성인문법                  Learner's reanalysis 학습자의 재해석  
[S[V<sub>I</sub>[<sub>IP</sub>ttO]]]                  ->                  [<sub>IP</sub>SVO]

pro-drop이론에 따르면 INFL은 pro를 인식하기 위해 일정한 방향으로 지배되어야 한다. 동사가 pro에 전치됐을 경우 pro지배 방향이 준수되었지만 어린이들이 재해석한 구조로 인해 V<sub>I</sub>전치가 손실되었으며, 결과로서 pro는 적절한 방향으로 지배되지 않게 된다. Adams(1987)는 프랑스어가 오류로 인한 구조화로 pro를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V<sub>I</sub>전치 및 V<sub>2</sub>를 잃어 pro-drop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pro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 내린다<sup>25)</sup>.

## 2.2.2 'pro'인식 조건 변화 : Roberts(1993)

Roberts(1993)는 Adams(1987)와 마찬가지로 중세 프랑스어에서 중요한 변화로 V<sub>2</sub> 구조(XSV)와 SVO 어순의 증가를 든다. 그는 고대 프랑스어 V<sub>2</sub> 구조에서 pps의 생략이 빈번하다고 본다.

다음은 Roberts(1993)가 제시한 12, 13세기 문헌의 예이다.

23) a. Si chaï en grant povreté

          donc tombé(Je) en grand pauvreté

(Perceval 1; Roberts, 1993)

---

25) V<sub>2</sub> 언어만이 INFL을 COMP로 이동할 수 있다.

b. Or fait senblant cons'ele plore

(maintenant semble(elle) comme si elle pleure)

(Tristan,1.; Roberts,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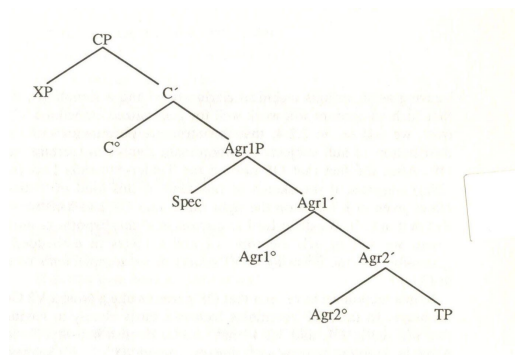
23a,b)는 부사구 *si, or*가 문장의 첫 성분으로 강세를 가지며, 동사 *chäi, senblant*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V2구조이다. pps 주어 *Je, elle*은 생략되었다. Roberts(1993)에 따르면 영주어는 기능 핵으로 상승하는 동사에 의해 지배받아 허가된다.

24) ... V+Agr<sub>i</sub> [pro[t<sub>i</sub>...

Roberts(1993)는 Agr에 의해 NP가 주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pro*가 Agr에 의해 허가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주격은 일치에서 할당받지만 영주어는 주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의 일부분에서만 인식된다.

Roberts(1993)에 따르면 고대프랑스어의 절clause은 Agr1, Agr2의 두 층위에서 실현된다.

《그림3》 초기 고대프랑스어의 이중 Agr 구조 수형도 (Roberts, 1993)



pro는 Agr1에서 먼저 굴절된 동사에 의해 허가되며, C에서 굴절된 동사에 의해 허가된다. 따라서 pro는 지배배열에서만 허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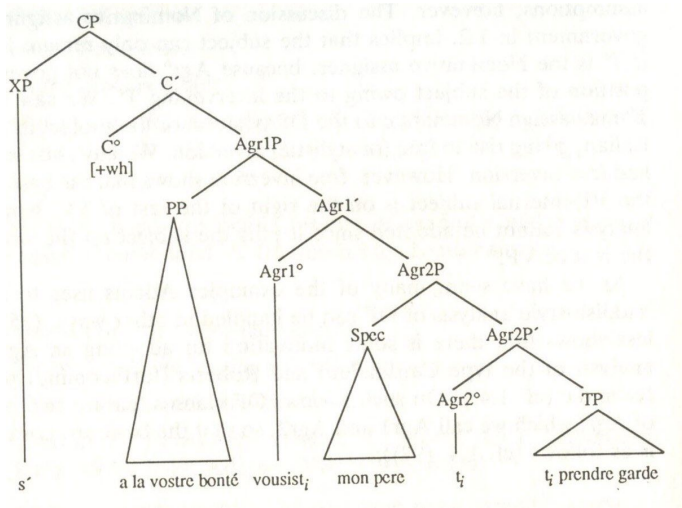
고대프랑스어 초기에는 pro가 동사 굴절에 의해 Agr1에서 허가됐지만 후기에는 C에서 동사 굴절에 의해 허가된다. C°에 [Agr]가 있는 주절 CP인지에 따라, 일차 SpecAgr'에서 격을 부여받을지 혹은 지배에 의해 SpecAgr'에서 주격이 할당되는지 결정된다.

24) s'a la vostr bonté vousist mon pere prendre garde  
 si contre votre bon vouloir mon père prendre garde

(le Roi Le Vair Palefroi; Adams, 1988)

다음은 Roberts(1993)가 (24)문장이 두 개의 Agr에서 점검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수형도이다.

《그림4》 초기 고대프랑스어 이중Agr 점검 수형도 (Roberts, 1993)



위의 수형도에서 보듯이, 명사구 주어 *mon père*는 굴절된 동사 *Vousist*의 Agr1'에서 점검받는다.

Roberts(1993)는 13세기에 동사활용형의 변별력이 크게 손실되어 *pro*가 사라진 것이라는 Foulet(1935,1936)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프랑스어가 16세기까지 영주어를 보인 것은 동사활용 접사가 약화된 3세기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영주어를 동사활용접사 약화로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Roberts(1993)에 따르면 Foulet(1935, 1936)가 제안한 바와 같이 고대 프랑스어는 13세기에 풍부한 일치자질Agr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pro*의 내용을 투사할 수 없으며 Agr1을 잃는다. 중세 프랑스어에서 *pro*는 Agr2에서 허가되며 점차적으로 AgrP로 분석된다.

Roberts(1993)에 따르면 15세기에 주절이 더 이상 CP로 분석되지 않는다. Roberts(1993)는 매개변인 변화를 유인한 요소로 습득이론인 최소 노력전략Least Effort Strategy 이론<sup>26)</sup>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SVO 구조를 V2 구조의 CP보다 AgrP로 분석했을 때 더 적은 연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LES에 의해 더 적은 연쇄인 AgrP가 선호되는 것이다.

- 25) a. [<sub>CP</sub> NP<sub>i</sub> [<sub>C'</sub> V + Agr<sub>j</sub> [<sub>AgrPt<sub>i</sub></sub> [<sub>Agr'</sub> t<sub>j</sub> ... =>  
 b. [<sub>AgrP</sub> NP<sub>i</sub> [<sub>Agr'</sub> V + Agr...]

25)는 중세 프랑스 시기인 14세기에 발생한 변화로 SVO절이 CP에서 AgrP로 재해석되는 단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14세기에 발생한 SVO절의 재해석 결과로 문장의 첫 성분으로 주제와 부사구를 가진 V3어순이

26) Least Effort Strategy

Representations assigned to sentences of the input to acquisition should be such that they contain the set of the shortest possible chains(Roberts 1993)



가능해진다.

Roberts(1993)는 pps 용법의 변화를 습득과 매개변인 값의 변화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모 세대의 기저 매개변인을 다음의 세대가 다르게 상정하여 변화가 발생한다. pro가 후치에서 전치로 분포가 변화한 것은 pro의 인식 조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AgrP로 분석되기 시작할 시기에 V2를 잃었지만 XPVpro어순을 가진 주절에서 SpecAgr'자리에 pro가 가능했다. 정형동사의 위치(Agr°) 변화로 인해 pro의 위치도 변화했다. 습득원리인 LES로 인해 CP에서 AgrP로 평서문 주절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가 V2를 잃게 한다. 16세기에 SVO어순이 급격하게 증가되며 고정된다. SV어순은 급증하며 VS, NS 어순은 급감한다.

다음은 Roberts(1993)가 제시한 15, 16세기의 어순별 사용 비율이다.

26)	SV	VS	NS
15세기:	48%	10%	42%
16세기:	77%	3%	15%

26)에서 보듯이 15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SV 어순이 크게 증가하며 NS 어순이 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SpecCOMP에 pro가 위치하며 지배에 의해 식별된다<sup>27)</sup>. 매개변인의 변화로 인해 중세 프랑스어에서 일치에 의해 pro가 식별가능하게 된다<sup>28)</sup>. V2손실로 인한 주격할당 매개변인이 16세기에 변

---

27) [cp XP [c'C° + Agr° [AgrPpro...

car de mes membres ne me pouvoie encor bien aidier (CNN, Prologue)  
(Roberts1993)

28) [AgrPpro[Agr'Agr°.

화되면서 SpecAgr'의 pro의 위치에서 격이 할당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pro식별의 매개변인 변화로 인해 영주어를 더 이상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 2.2.3 'pro'위치 변화 : Vance(1997)

Vance(1997)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주격은 C°의 지배로 허가되며 주절 SpecAgrP, SpecTP<sup>29)</sup>에서 인식된다고 한다.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CSV 구조가 증가하며 V2를 잃어 정형동사를 C°로 이동하지 못한다. Adams와 마찬가지로 Vance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pro의 위치는 V2절의 동사 뒤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Vance(1997)에 따르면 pro는 15세기에 주절에서 동사에 전치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며(VX), 보어절에서 주어가 아닌 성분 XP가 동사를 선행하던 구조가 주절에서 증가한다. 이러한 SVX절은 AgrP로 분석한다. pro는 SpecAgrP로 Agr°인 정형동사에 전치된다. 중세 프랑스어에서 V2 제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CSV어순은 CVS와 공존한다. 이것은 V2의 초점화가 SpecIP의 부가에 의해 점차적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13세기의 화자-청자는 명시적 pps가 필수적으로 도치되는 것으로부터 CV절의 pro도 도치된다고 상정한다. 15세기에는 CV를 두 가지 기저구조로 분석 가능하게 된다. 즉 CproV 혹은 CVpro 사이에 의미·통사적으로 중의적인 분석을 허용한다. CVS는 CSV에 의해 CVSp는 CSpV에 의해 점차 대체된다. 고대 프랑스어에서 CV는 CVpro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CSV와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치된 pro는 다른 구조에 확장되었다. pro는 주제화된 성분[+topic]자질을 Agr°에

29) 시제 표시 조동사 및 시제 형태소가 핵인 시제구이다.

가질 때만 허가된다. V2가 감소하면서 CV도 감소하였고 정형동사는 더 이상 [+topic]자질을 가지지 않는다.

## 2.3 선호도 원리 설명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로 선호도 원리는 언어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오류는 주어진 언어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며 오류는 청자의 해석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언어변화의 양상은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한 의미가 두 형태를 가질 경우 화자가 오류를 가장 적게 갖게 되는 것의 사용이 선호되어, 사용의 빈도가 우세해지고 사용이 정착된다.

Kroch(1989)에 따르면 언어는 문맥에서 다른 문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즉 새로운 형태는 먼저 제한된 문맥에서 나타나지만 점차 다른 문맥으로 퍼지며 넓게 수용된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회 그룹은 새로운 형태를 사용하며 이 새로운 형태는 다른 사회 그룹에게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 모방을 야기하며, 다른 사회 그룹의 유추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는 퍼져나가게 된다. 두 형태의 경쟁에서 존속하게 되는 형태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

### 2.3.1 경쟁관계 가설 : Sprouse&Vance(1999)

Sprouse&Vance(1999)는 한 문법 사항option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 그 둘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Kroch(1989)의 경쟁관계 가설에 따라 pps 용법의 점진적 변화를 설명한다. Kroch(1989)는 영어 조동사 'do'가 생겨

난 이유에 대해 검토하며 통사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do가 생겨난 원인은 화자가 처리과정의 복잡성complexity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에서 비롯한다.

Kroch(1989)가 제안한 다른 문장 분석(differential parsing success)은 경쟁하고 있는 두 형태 중 하나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 분석을 통해 프랑스어가 영주어에서 명시적 pps 사용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이해 될 수 있다.

Kroch(1989)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A, B형태가 A는 90%, B는 10%로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청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인해 A는 10%의 청자가 잘못 해석하는 반면, B는 100%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바르게 해석된 비중은 A는 90%, B는 10%에서 각각 89%와 11%로 변한다. 이러한 오류 해석의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Kroch(1989)는 동일한 의미해석을 가질 경우에만 두 형태가 경쟁한다고 간주한다. Sprouse&Vance는 pps와 pro가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명시적 형태는 영주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되리라 예상한다. 영주어형태는 해석의 실패로 인해 인지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명시적 형태가 우세하게 된다.

이 가설의 반례로는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등 영주어형태가 유지되는 언어들에 있는데 이탈리아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Sprouse&Vance(1999)에 따르면 이탈리아어의 대명사는 이탈리아어의 영주어와 동일한 지시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둘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27) a. Il professore<sub>i</sub> ha parlato dopo che lui<sub>j/\*i</sub> è arrivato

the professor has spoken after that he is arrived

b. Il professore<sub>i</sub> ha parlato dopo che [e]<sub>j/i</sub> è arrivato

the professor has spoken after that (he) is arrived

(Sprouse&Vance, 1999)

27)예에서 *lui*는 이탈리아어에서 강세대명사에 해당하지만 *pro*는 약세 대명사이다. 대조적이거나 강조될 경우에 사용되는 *lui*는 더 높은 매듭에 있는 주어에 의해 결속되지 않지만, *pro*의 경우는 결속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lui*와 *pro*의 구분되는 지시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Sprouse&Vance(1999)는 이탈리아어의 경우 영주어형태와 pps는 동일한 지시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경쟁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들은 중세 프랑스어의 pps는 영주어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며 영주어와 동일한 지시 값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Sprouse&Vance(1999)가 제시한 영주어와 pps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된 예로 제시한 문장이다.

28)a. Ores que ceste chose est si publiee que ne se puet retourner

Now that this thing is so published that Neg Refl can return

(Jehan de Saintr  239, 12; Vance&Sprouse1999)

b. don't la joye fut tant grant par la ville qu'elle ne se pourroit

of-which the joy was so great around the twon that-it Neg could  
compter

count (Jehan de Saintr  160, 5; Sprouse&Vance, 1999)

위의 중세 프랑스어 두 문장은 *que* 보문소를 가진 보문절로 주어는 허사이다. 28a)는 허사주어 pps *il*이 생략된 반면 28b)에서는 허사주어

pps *elle*이 생략되지 않았다.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영주어와 명시적 형태가 동일한 구조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명시적 형태가 영주어 형태와 비교해 어떤 강조도 갖지 않는 예이다.

29)a.  $Il_i$  dist que son seel et sa lettre  $il_i$  advouoit

He said that his seal and his letter he affirmed

(Jehan de Saintr  148, 17)

b.  $[e]_i$  firent savoir a leurs gens que la  $[e]_i$  estoient

(they) made know to their people that there (they) were

(Jehan de Saintr  265, 1)

29a)에서는 pps *il*이 주절과 보어절에서 공지칭되며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29b)에서는 pps *e(ils)*는 생략되어 나타난다. 이때 명시적 pps에는 대조나 강조가 없다. 두 형태는 동일한 지시속성을 보인다.

DPM에 따르면 영주어형태가 명시적 주어에 비해서 더 많은 해석오류를 야기한다. 영주어의 경우 문장 해석의 실패의 빈도가 높다. 영주어는 pps에 비해 인지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Sprouse&Vance(1999)에 따르면 pps의 사용은 영주어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된다. Sprouse&Vance(1999)는 청자와 화자가 높은 정확성으로 인해 pps의 사용을 선호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영주어가 사라졌을 것으로 본다.

### 2.3.2 최적성 이론 : Lafond(2003)

Lafond(2003)는 약화되어 모호성이 증가한 동사 굴절요소의 대체 수단

으로서 pps가 사용되었다는 전통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적성 이론의 범주 내에서 프랑스어 pps 용법의 변화를 연구한다.

Lafond(2003)에 따르면 인간 언어는 최대의 명확성과 동시에 최대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모호성과 동시에 잉여성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목적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표현 중 화자의 문법과 청자의 해석에서 중의성과 선호도에 의해 변화가 유인된다.

최적성 이론에 따르면 문법 체계 중 여러 후보자가 있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 최적의 것이 우위에 놓이게 된다. 최적성이론 범주 내에서 프랑스어 영주어가 손실되는데 어떤 계보적인 제약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자.

### 30) Hutoon(1996)이 제안한 가능한 변화의 유형

Alterations to the constraint Hierarchy(Hutton 1996:4)

- a. Promotion of constraints
- b. Demotion of constraints
- c. Creation of new dominance relations between constraints  
(A,B->A»B)
- d. Dissolution of dominance relations between constraints  
(A»B->A,b)
- e. Alteration of dominance relations between constraints  
(A»b->B»A)

Lafond(2003)은 3b)인 Tesar&Smolensky(2000)의 좌천제약 Constraint demotion(CD)과 해석의 풍부함Robust Interpretive Parsing(RIP)을 통해 영주어 용법 변화를 분석한다. RIP/CD 알고리즘은 후보자들 간에 초래

된 위반의 빈도를 토대로 경쟁 형태들을 비교해 최적의 것을 찾으며 위반 빈도를 계층화해 후보자 간에 순위를 매긴다.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청자와 화자는 최적의 형태에 있어 서로 다른 순위를 가진다. 청자와 화자의 순위의 차이는 언어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 31) 우선순위 불일치

청자의 계층 : Constraint1» Constraint2 » Constraint3

화자의 계층 : Constraint2» Constraint1 » Constraint3

(Lafond, 2003)

31)에서처럼 청자는 Constraint1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화자는 Constraint2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pps와 영주어 형태에 적용한다면 화자는 영주어 형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청자는 우선적으로 pps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청자와 화자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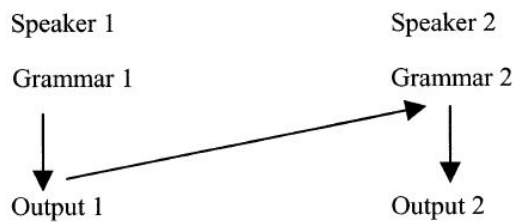
청자는 화자가 창출한 결과물, 즉 발화된 내용을 토대로 문법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Robust Interpretive Parsing(RIP)가 화자의 발화문의 할당된 기저 구조를 분석한다. 여기서 붕푸함robustness은 화자가 기저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표층 구조에서 실현되는 것과 기저 구조 사이에 최대의 조화를 가지는 것이 처음으로 할당된다. 청자는 다음으로 최적의 결과에 위반된 제약을 현재의 내재하는 문법체계의 제약과 비교한다. RIP/CD는 후보자 중에서 의도된 발화문을 생산하는데 가장 적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의도된 것에서 가장 적은 위반을 한 문법이 생성된다.

Lafond(2003)에 따르면 언어습득과 언어 사용이 언어변화에 중요하다.



학습자는 언어 공동체의 문법과 상충되는 문법구조를 전제할 수도 있다. 사용의 측면에서 화자는 경제성과 정확성을 취해 언술을 수정할 수도 있다.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르면 청자는 이러한 분석의 오류를 토대로 새로운 문법 체계를 생산한다.

《그림5》 언어변화의 오류 추론 모델(Andersen, 1973; Lafond, 2003)



《그림5》는 Andersen(1973)의 언어 변화 모델이다. Andersen는 화자의 발화는 화자가 내재한 문법에 의해 결정되며 내재된 문법은 추론된 발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Lafond(2003)는 화자의 문법과 청자의 측면에서 해석의 모호성과 선호도의 차이로 변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Lafond는 결과물과 인지된 것 사이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명사가 선호되어 우세한 형태가 되며 영주어 형태는 약해진다고 결론 내린다.

Sprouse&Vance(1999)와 Lafond(2003)의 제안은 기존의 음성적 층위와 통사적 층위의 pps-용법 변화 설명에서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지만, 언어 변화의 보편적 관점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sup>30)</sup>.

Sprouse&Vance(1999)가 제안한 설명을 살펴보면, 언어 사용자는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추구하므로 잉여적 정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

사용에서 문맥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어 일치 표지 없이 주어가 생략되는 언어가 존재한다<sup>31)</sup>. 고대 프랑스어는 풍부한 일치 표지의 변별력으로 주어 해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pps의 해석의 높은 정확성과 영주어의 해석의 실패가 pps용법 변화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 Lafond(2003) 설명만으로는 영주어가 현대 언어에서도 잔존하는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를 설명하지 못한다.

---

31)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 Ⅲ. 언어변화 양상을 통한 PPS기능 재해석

Langacker(1977)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의 언어변화는 여러 요소에 의해 유인될 수 있다. 언어변화는 문법적, 심리적, 사회적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야기 될 수 있으며 두 가지 혹은,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고 한다. 고대 프랑스어의 영주어가 현대프랑스어 명시적 용법으로 변화한데에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여러 원인이 있다.

Vance&Sprouse와 Lafond(2003)의 제안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 pps의 의무적 용법을 고정화시킨 원인을 보편적 언어변화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자.

#### 3.1 언어단순화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은 언어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어 습득은 언어사용을 하도록 허용하며, 습득에서 발생한 세대 간의 작은 차이들이 점진적인 언어변화를 유도한다.

Lightfoot(1979)은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 할 때 주어진 자료와 일관된 가장 단순한 문법을 취한다고 한다. 만약 요구하는 데이터보다 문법 형태가 더 복잡하며 불확실하다면 학습자는 더 단순한 문법을 위해 결과물을 수정한다.

Halle(1962)은 언어 변화를 야기하는 원천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문법에 경미한 추가를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어른들은 이미

문법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을 재해석, 재구조화하거나 최적의 문법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어린이들은 최적화되지 않은 어른들의 문법을 배우며 그들에게 노출된 자료에서 가장 단순한 문법을 만들어 내재화한다. Pintzuk et al.(2000)은 학습자는 문법의 계산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언어학습의 단순화를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입장을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학습자와 사용자들은 언어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법체계를 더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며, 이것이 언어 변화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된다.

### 3.1.1 효율성 원리

화자가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어를 작거나 크게 변동시킨다. 다음으로 언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제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의 단순화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Hawkins(2003)은 언어의 복잡성과 효율성<sup>32)</sup>에 관한 3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이론 중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PERFORMANCE-GRAMMAR CORRESPONDENCE HYPOTHESIS<sup>33)</sup>

---

32) Hawkins(2003)에 따르면 복잡성의 기준은 언어의 문법과 구조에 기반을 두어 정의된다. 효율성의 중요 성분은 일반적으로 구조와 문법의 단순화를 포함하지만 효율성은 때때로 복잡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지면 다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것이며 유사하게 단순성은 다른 측면에서 복잡성을 가질 것이다.

33) 수행-문법 일치 가설

문법은 수행에서 선호되는 비율의 정도에 의해 관습화되며, 이것은 사용빈도와

Grammars have conventionalized syntactic structures in proportion to their degree of preference in performance, as evidenced by frequency of use and ease of processing.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언어수행에서 쉽고 동시에 선호되는 구조가 문법적으로 구조화 된다는 내용이다. Newmeyer(2005)에 따르면 선호도는 효율성을 반영한다. 화자는 구조적 복잡성을 축소하며 효율성을 증가시키려고 한다<sup>34</sup>. 이러한 화자의 노력과 관련하여 Hawkins(2003)가 제시한 다음의 이론을 보도록 하자.

(2)MINIMIZE FORMS<sup>35</sup>)

The human processor prefers to minimize the formal complexity of each linguistic form F (its phoneme, morpheme, word or phrasal units) and the number of forms with unique conventionalized property assignments, thereby expanding the compatibility of F with a larger set of properties {P}. These minimizations apply in proportion to the ease with which a given P1 can be assigned in processing to a formally reduced F with expanded property compatibilities.

Hwakens(2003)에 따르면 언어 형태는 노력을 요구한다. 이 이론에서, 형태 혹은 구조에서 형식적 단위를 축소하며 형태를 최소화 하면 언어 사용이나 주어진 문장에서 언어사용자가 처리해야할 형식단위 수가 줄어

---

처리의 용이함에 기반을 둔다.

34) Newmeyer(2005)는 언어처리의 용이성에 관한 선호도를 언어심리학과 코퍼스론으로 증명하였다.

35) 형태 최소화

언어 사용자는 각각의 언어형태의 형식적 복잡성(음소, 형태소, 단어, 절 단위)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하나의 관습적으로 할당된 속성을 가진 여러 형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속성을 가진 형태의 양립가능성이 확장된다. 이러한 최소화는 확대된 양립 가능한 속성과 함께 축소된 형태의 처리에 의해 할당될 수 있는 주어진 P1과 용이함의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언어적 노력이 최소화된다.

Hawkins(2009)에서 의사소통은 의도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빠른 시간dksdp 최소한의 처리노력을 통해 전달될 때 효과적이다. 그에 따르면 효율성으로 인해 언어 수행에서 축소된 형태가 선호되어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그 대응쌍인 더 복잡한 형태는 더 낮은 빈도로 사용된다.

Hawkins(2004)는 문법화를 문법 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고대 프랑스어의 영주어가 현대의 용법을 가지게 된 과정도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3.1.2 투명성 원리: 의미·형태 일치 원리

Lightfoot(1979)이 제시한 투명성 원리transparency principle에 따르면 표층구조는 기저구조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파생되도록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언어들은 형태와 의미 단위 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지향한다. 투명성원리에서처럼 의미와 형태가 일대일 대응관계를 지향하여 변화된다면 언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Langacker(1977)에 따르면 투명성은 언어 기호에 이상적이며 최적의 원리이다. 모든 표층 단위가 의미 및 기능과 연결되면 인식 가능한 내용이 최적화된다. 따라서 언어들은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되려는 경향을 가진다. 명확한 의미 혹은 통사기능을 갖지 않는 형태소가 손실된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증명해 보인다.

언어의 형태와 의미가 일치될 때 해당 언어의 처리processe가 더 쉽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있다. 회생대명사resumptive pronoun<sup>36)</sup>의 습득

---

36) 회생대명사는 관계사절의 경우 관계사와 조응관계를 상정해 반복하지 않고 생략

에서 언어처리의 용이함을 추론한 논의를 살펴보자.

모국어가 회생대명사를 갖지 않을 때도 학습의 대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예로 Pérez-Leroux(1995)가 모국어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습득하는 어린이의 언어에서 발견한 회생대명사 사용의 예가 있다. Matthews&Yip(1994)이 연구한 광둥어 화자 어린이들도 학습언어에서 회생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생대명사 사용이 언어를 더 단순하고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학습자와 어린이 언어에서 나타난다.

회생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더 많은 단어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회생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지만, 의미측면에서 더 단순하다.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선택하는데 회생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종속절에는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의미-형태 일치 관점에서 더 단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의미 전달을 위해 더 많은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의미와 형태가 일치하는 것이 더 쉽고 단순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어의 pps가 의미를 가진다면 생략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 인지처리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3.2 통합적 체계에서 분석적 체계로의 교체

Hawkins(2003)와 Lightfoot(1979)의 이론은 인도유럽어의 언어변화 방향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인도유럽어의 경우, 통합적 체계synthetic에서 분석적 체계analytic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Schlegel(1846)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 및 영어의 기원은 통합적이지만, 그 언어들은 분석

---

하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해 사용하는 대명사이다.

적 형태를 강하게 지향하는 분석적 문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Lakoff(1971)는 인도유럽어의 많은 변화는 분석적인 표층구조의 생산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형태적으로 통합된 형태보다 독립적으로 분절된 표층구조를 구성하는 규칙이 선호되어 가능한 곳에 분절된 새로운 형태를 갖는다.

통합적 체계와 분석적 체계에 대한 Anderson(1992)의 정의를 따르면 통합적 체계는 여러 문법 정보의 표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체계이며, 분석적 체계는 하나의 문법정보가 독립된 문법 표지로 나타나는 체계이다. 그가 제시한 분석적 표지는 기능어로 등위접속사, 한정사, 대명사, 전치사, 조동사, 부정사 등이 있다. 통합적 표지로는 동사, 명사, 형용사의 굴절 접사 등이 있다.

Humboldt(1836) 및 Szmrecsanyi (2009)는 분석적 형태는 이해의 복잡성을 축소하며 명확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통합적 언어는 화자의 결과물의 경제성과 표현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분석적 형태에 비해 통합적 형태는 더 압축적이고 경제적이다. 분석적 형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하나의 형태에 담겨 있는 통합적 형태를 대체하며 여러 성분으로 해체되었다<sup>37)</sup>. 분석적 형태는 통합적 형태보다 언어사용자와 언어학습자에게 있어 단순화된 형태로 효율성이 높다. 언어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단순화의 노력으로 인해 인도유럽어에서 많은 경우의 분석적 형태가 고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sup>38)</sup>.

---

37) 이러한 변화의 예로 영어의 태와 시제는 동사의 형태소로 구분되었지만 범주의 변화를 겪으면서 조동사가 되며 통사적으로 구분된다. 로마어 및 영어의 경우 격은 어순과 전치사로 대체된다.

38) Szmrecsanyi (2009)의 코퍼스 분석에 따르면 구어 텍스트가 문어에 비해 월등히 분석적이다. 이를 통해문어가 구어에 비해 더 통합적인 것이 확인된다. 언어의 변화에서 더 전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은 구어로써, 문어에 비해 더 짧은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였기에 문어와 비교해 언어의 효율성과 단순화가 더 많이 요구된다.



### 3.2.1 인도유럽어의 분석적 체계 변화 예

인도유럽어에서는 통합적 체계에서 분석적 체계로 변화한 다수의 예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사의 시제 및 태의 표지 방식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초기 로망어 및 영어의 경우 태와 시제는 형태소인 동사접사로 구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사적으로 구분된 형태인 조동사가 태와 시제를 구분한다.

다른 예로 로망어 및 영어의 경우 격은 어순과 전치사로 대체된다. 예컨대 5세기부터 라틴어의 여격 *amico*는 *ad illu(m) amicu(m)* 분석적 여격으로 대체된다. 이 형태는 단어를 세 요소로 분해한다. 한 요소는 의미를 표현하며 다른 한 요소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인칭들과의 대립을 규정하며 제 3의 요소는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동일한 경향에 따라 전치사나 굴절어미가 구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라틴어 비교체계는 굴절 통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eg. *fortis, fortior, fortissimus*), 모음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분석적 형태의 비교급(*magis, maxime*)이 주로 사용되었다. 로마제국 말기의 라틴어로 갈수록 새로운 비교급이 더 흔하게 사용되었다.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형태에 담겨 있던 통합 형태를 분석적 형태가 대체함에 따라 통합 형태는 여러 성분으로 해체되었다. 해체된 분석적 형태가 통합적 체계보다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의 복잡성을 줄여주어, 분석적 형태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문법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2.2 분석적 체계의 PPS

Posner(1997)에 따르면 프랑스어는 굴절요소에 의해 문장기능을 부여 하던 통합체계에서 각각의 의미를 가진 자율적인 어휘를 갖는 분석적 체계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를 단순화하고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언어학습자와 사용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어 pps의 용법 변화도 이러한 경향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사의 접미사로 인칭과 수가 표지 되어 하나의 동사형태가 주어와 동사의 의미 기능을 전달하던 것이 각각의 의미 기능을 담는 형태의 어휘로 분화된 분석적 체계로 변화하였다고 보인다.

영주어와 굴절을 통해 격표지를 하는 라틴어와 명시적PPS를 사용하는 프랑스어의 문장을 비교해보자.

32) a. Credo deos esse (latin)

b. Je crois qu'il existe des dieux (français)

위의 예문은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문장이다. 라틴어는 3개의 어휘로 이루어진 반면 프랑스어는 7개의 어휘로 구성되었다. 단순히 보았을 때 라틴어의 문장이 3개의 어휘로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어는 굴절을 통한 통합적 체계의 언어로 언어의 경제성은 높지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어휘의 범주를 파악해야한다. 동사의 경우 접사로 시제, 태를 파악해야 하며 동사의 형태로 주어를 파악해야하므로 훨씬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차이를 더 잘 보기 위해 프랑스어의 croire와 라

틴어 동사 credere의 동사활용 표를 보도록 하자.

《표6》 프랑스어 croire동사활용표

indicatif présent	indicatif imparfait	indicatif futur simple
je crois	je croyais	je croirai
tu crois	tu croyais	tu croiras
il/elle croit	il/elle croyait	il/elle croira
nous croyons	nous croyions	nous croirons
vous croyez	vous croyiez	vous croirez
ils/elles croient	ils/elles croyaient	ils/elles croiront
indicatif passé composé	indicatif plus-que-parfait	indicatif futur antérieur
j'ai cru	j'avais cru	j'aurai cru
tu as cru	tu avais cru	tu auras cru
il/elle a cru	il/elle avait cru	il/elle aura cru
nous avons cru	nous avions cru	nous aurons cru
vous avez cru	vous aviez cru	vous aurez cru
ils/elles ont cru	ils/elles avaient cru	ils/elles auront cru

《표7》 라틴어 crēdere동사활용표

Indicatif présent	Indicatif imparfait	Indicatif futur simple
crēdō	crēdebam	crēdam
crēdis	crēdebās	crēdēs
crēdit	crēdebat	crēdet
crēdimus	crēdebāmus	crēdēmus
crēditis	crēdebātis	crēdētis
crēdunt	crēdebant	crēdent
Indicatif parfait	Indicatif plus-que-parfait	Indicatif futur antérieur
crēdidī	crēdideram	crēdiderō
crēdidistī	crēdiderās	crēdideris
crēdidit	crēdiderat	crēdiderit
crēdidimus	crēdiderāmus	crēdiderimus
crēdidistis	crēdiderātis	crēdideritis
crēdidērunt	crēdiderant	crēdiderint

《표6,7》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프랑스어의 경우 3개의 시제에는 조동사 *avoir*가 규칙적으로 사용되며 동일한 분사가 6개의 인칭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라틴어의 경우 모든 시제가 6개 인칭별로 모두 다르며, 시제 별로 동일한 인칭의 경우에 동사 어미가 하나의 음소를 제외하고 흡사한 경우가 많다. 라틴어 동사는 시제와 수·인칭 별로 대략 200개의 형태소에 의해 구분되는 복잡성을 보인다. 이러한 라틴어의 체계는 화자와 청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 화자 및 청자가 동사활용을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더라도 언어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2)에에서 단어의 수는 프랑스어가 현저하게 많아 경제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문장성분 각각이 하나의 기능과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인지처리과정에서는 더 용이하다. Sato&Bergen(2013)에 따르면 대명사가 있을 경우, 문장에 언급된 대명사와 연관된 시각의 이미지를 식별하는데 용이하다. pps가 생략되면 문장은 명시적으로 언급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어는 pps의 사용으로 고정된 의미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pps의 활용에 기댄 의미의 고정을 통해 프랑스어의 화자나 청자의 경우 언어를 사용하고 인지처리 하는 것이 라틴어의 경우보다 더 간단하다. 분석적 체계의 pps사용이 굴절을 통해 수·인칭을 표지하는 통합적 체계보다 언어처리의 효율이 높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영주어형태보다 명시적 형태가 선호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3.3 언중변화에 의한 PPS기능 변화

pps의 용법이 의무적으로 된 것에 대해, 단순히 언어의 단순화와 효율성 재고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의 공백을 pps용법 변화에 관한 역사적·사회적 설명이 메울 수 있다. Meillet(1921)에 따르면 언어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변적인 요소는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구조의 변화는 언어 사용조건을 변화시킨다. Posner(1997)은 사회구조변화는 언어변화를 수반하며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창순(2000)은 언어는 수직적으로 혹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데 수직적 변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계층에 의한 변화이며 수평적 변화는 지역적 경계 내에서의 변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변화는 수직적 변화로서 언어 사용자들의 계층 변화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pps의 용법 변화도 이러한 사회 흐름에 의한 언중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었을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3.3.1 프랑스어 언중의 변화와 PPS사용과의 관련성

Posner(1997)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많은 변화는 낮은 계층의 언어인 구어Vulgarism에 의해 야기되어 우세하게 사용되던 언어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언어 처리 및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형태이기도 한 pps의 사용역시 사회변화에 따른 언중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랑스 중세사의 특징 중의 하나로 우리는 시민계층의 등장을 들 수 있다. Cohen(1996, 김동섭역)에 따르면 프랑스는 14세기에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어 삼부회의가 소집된다. 왕권은 이 기간을 통해 귀족, 성직자 및

고위시민계층과 접촉한다. 중세기에 최초로 등장한 프랑스 시민계층은 그들의 정치적·경제적 입지 상승과 더불어 확대된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위의 수직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지위의 수직적 이동은 언어의 수직적 이동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프랑스어의 단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변화의 흐름과 동시에 pps 용법은 17세기에 확립되었다. 동사 굴절은 약화되었으며 pps는 생략되지 않았다. 비교적 낮은 계층의 언중은 언어의 형식적 체계보다는 사용의 효율성을 추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계층의 성장으로 인해 전반적 언어 사용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 3.3.2 언중변화에 따른 PPS사용의 예

#### 3.3.2.1 크레올어의 예

사회적 배경 및 언어 사용자의 변화에 따른 언어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로 크레올어의 예를 들 수 있다. 크레올어는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으로 이주한 아프리카인 노예의 언어 혹은 유럽지역이 점령한 지역의 언어로 일반적으로 기층어인 아프리카어와 상층어인 유럽어가 혼합된 언어이다. 크레올어는 피진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피진어는 이미 서로 다른 모국어가 형성된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과적으로 피진어는 형태와 통사 등이 단순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크레올어는 피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의 언어로서 피진어보다는 규격화된 언어이지만 피진어의 특징을 계승한다.

크레올어는 다양한 지배언어와 지리적, 역사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형태·통사적으로 눈에 띄는 공통점들이 있다. Bickerton(1981)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크레올어에는 동사 굴절이 없으며 SVO의 어순을 취한다고 밝힌바 있다. 일반적으로 크레올어는 지시적 영주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처럼 동사 굴절이 풍부한 영주어 언어가 지배언어인 크레올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동사 어미의 일치표지가 부재하며 지시적 주어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33)a. E ta kome

él está comiendo

b. \*Ta kome

está comiend

(Muysken, 1988:291)

33)는 스페인어를 기층어로 하는 크레올어이다. 33b)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는 주어가 생략가능한 문장이 크레올어에서는 pps E를 생략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크레올어는 수직적 변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이다. 빠른 시기에 두 언어가 혼합되어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언어사용자들의 접촉으로 인해 보다 쉽고 효율적 언어 사용을 지향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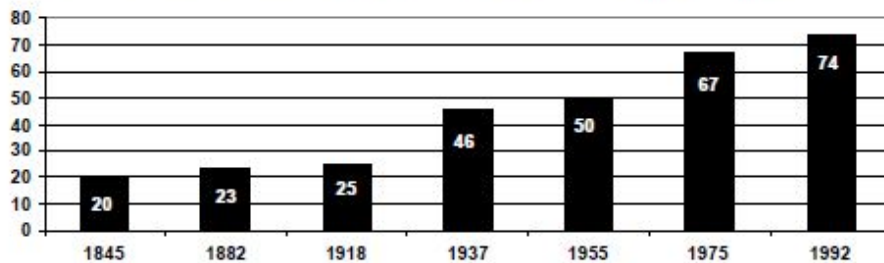
기존의 설명과 같이 프랑스어가 보였던 음성적 변화에 따른 동사 일치 의 손실 및 V2 매개변인의 손실과 세대 간의 점진적 변화에 의해 유인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어와 유사하게 동사 굴절 어미 탈락과 pps의 의무적 사용 및 SVO어순을 보인다.

### 3.3.2.2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예

크레올어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사용되는 로망어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한 변화가 발견된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카리브해안의 스페인어와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있다<sup>39)</sup>. 두 국가의 언어는 영주어언어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언어이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서는 유럽의 본국에서와는 달리 pps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동사접사 굴절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주어대명사의 명시적 pps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된다는 증거로 Duarte(1993, 2000)가 제시한 19, 20세기의 브라질 대중 연극 공연 대본의 코퍼스 자료가 있다.

《표8》 브라질 포르투갈 연극에서 pps 사용(Duarte, 1993)



《표8》에서 보듯이 20세기 초반인 1918년까지 pps의 사용은 20%내이지만, 1937년을 기점으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에는 74%라는 높은 비율로 pps가 사용된다.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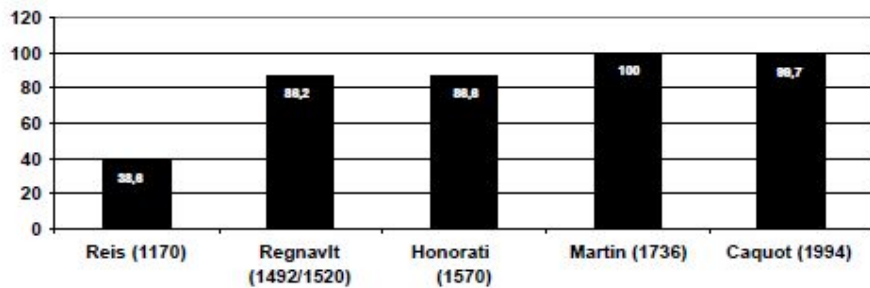
39) Tarallo(1993), Meyer-Hermann(1998), Lira(1996), Barme(2001), Kato&Negrao(eds)(2000) -Brazilian Portuguese is on the way to becoming a non null subject language, undergoing a parametric change from a null subject to a non null subject language.



포르투갈에서 어휘적으로 실현된 pps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Kaiser(2009)가 제시한 프랑스어 성경 코퍼스 통계와 《표8》의 브라질 포르투갈어 통계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유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표9》 프랑스어 성경의 pps 사용 (Kaiser, 2009)



《표9》에서 보면 프랑스어에서도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은 비율을 보이던 pps사용비중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프랑스어의 또 다른 유사한 변화로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의 동사활용접사가 단순화된 경향을 들 수 있다.

《표10》 포르투갈어 동사활용(Kaiser, 2009)

인칭	고대 포르투갈어				현대 유럽 포르투갈어				현대 브라질 포르투갈어			
	eu	cant		o	eu	cant		o	eu	cant		o
1sg	eu	cant		o	eu	cant		o	eu	cant		o
2sg	tu	cant	a	s	tu	cant	a	s	vocé	cant	a	-
3sg	el(le,el(l)/ el(l)a	cant	a	-	ele/ela	cant	a	-	ele/ela	cant	a	-

1pl	nos,nós	cant	a	mos	nós	cant	a	mos	nós	cant	a	mos
									a gente	cant	a	-
2pl	vos,vós	cant	a	des	vocês	cant	a	m	vocês	cant	a	m
3pl	el(l)es/e(l)las	cant	a	m	eles/elas	cant	a	m	eles/elas	cant	a	m

《표10》에서 보면 고대 포르투갈어는 6개 인칭별로 구분되는 동사활용접사를 가지며 현대 유럽 포르투갈어에서는 2인칭과 3인칭 복수가 동일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 5개의 수인칭이 구분된다. 현대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는 2,3인칭단수가 1인칭복수와 동일하게 되며 2인칭복수가 3인칭 복수와 동일해진다. 따라서 3개의 수인칭이 남는다.

Kaiser(2009)는 이러한 굴절의 약화를 인칭대명사의 대체의 결과로 본다. 2인칭 대명사 *tu, vos*는 각각 3인칭 단수, 복수와 동일한 일치를 하는 *você, vocês*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현대 프랑스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인칭 단수 동사의 일치와 동일한 일치를 하는 *on*이 같은 의미를 지닌 1인칭 단수 *nous*를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Coveney(2000)는 현대 프랑스어에서 *on*이 *nous*를 대체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프랑스어에서는 이미 *nous*는 유물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구어에서 pps *on*이 pps *nous*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표11》 *Nous*와 *On*의 사용 분포 (Compernelle, 2008)

Nous-subject pronoun	22	4.8
On-definite (nous)	437	95.2
Total	459	100

《표11》은 *on*의 1인칭 복수 용법이 구어에서 *nous*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대명사는 동일하게 1인칭 단수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on*의 경우 1인칭과, 3인칭 단수의 일치와 동일한 일치를 갖는다. 한편 *nous*의 경우 다른 인칭과 구분되는 일치를 갖는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현대 프랑스어에서 동시에 일치에 따라 더 단순한 형태의 일치를 갖는 pps에 의해 더 복잡한 굴절의 pps 사용이 대체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보여준 양상은 프랑스어의 변화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는 언어사용환경과 언어사용자들의 성향이 다르다. 유럽 포르투갈어는 오랜 시간 동안 모국어로 사용되었지만,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식민지에서 통치하던 자들의 언어를 브라질 인들이 학습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의 차이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 3.2.2.3 푸에르토리코 스페인어의 예

언중의 차이와 pps 사용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가 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pps는 높은 빈도수로 사용된다<sup>40)</sup>. Holmquist(2012)는 푸에르토리코에서 pps의 사용빈도수를 조사하여 사회적 요소인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이 pps의 사용빈도수와 연관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푸에르토리코의 섬 내부에서 pps의 사용이 더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언중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기인한다. 해안연안에서는 pps가 더 자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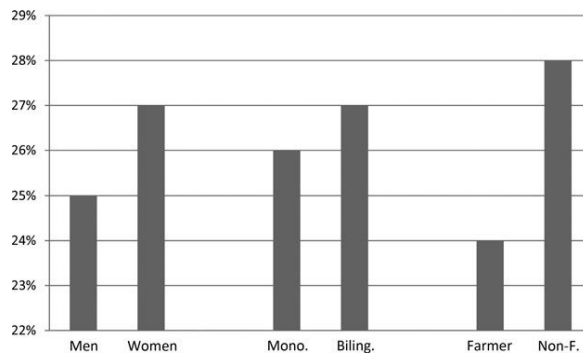
40) Homhberg (1986), Otheguy & Zentella & Livert (2007)

사용된다. 해안연안에서 pps 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은 해안연안에 더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주민들은 원주민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pps를 언어 단순화의 일환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Holmquist(2012)의 코퍼스 연구에서 pps 사용이 언중의 성향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표12》 화자에 따른 푸에르토리코 스페인어 pps 사용 빈도

(Holmquist, 2012)



《표 12》에서 보듯이 pps 사용 빈도가 가장 차이나는 집단은 Farmer 농부그룹과 Non-F농부가 아닌 그룹이다. Holmquist(2012)는 농부는 전통을 보수하는 생산 활동을 하며 보수적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을 가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보수적 경향이 pps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 3.3.2.4 고전 라틴어와 민중 라틴어의 예

또한 우리는 고전 라틴어와 민중 라틴어의 차이점을 통해 언어 변화가 사회적 배경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배 계층 및 지식인 층에서 사용하던 고전라틴어와 구어 라틴어인 민중라틴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를 쉽고 단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민중라틴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민중라틴어와 고전라틴어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먼저 음성적인 측면에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고전라틴어는 5개의 단모음 *ă, ě, ĩ, ō, ŭ*와 5개의 장모음 *ā, ē, ī, ō, ū*를 가지며 4개의 이중모음 *ae, oe, au, eu*를 가지는 반면 민중라틴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소의 장단 구분이 쇠퇴한다. 민중라틴어에서는 굴절의 용법을 대신한 전치사의 사용이 증가했으며, 어순이 규칙화 되어갔다.

《표13》 남성 제 2 곡용 ‘벽mur’의 고전, 민중 라틴어, 고대 프랑스어의 굴절 비교 (<http://en.wiktionary.org/>)

	<b>Classical</b> <b>(ca. 1st century)</b>	<b>Vulgar</b> <sup>[22]</sup> <b>(ca. 5th century)</b>	<b>Old French</b> <b>(ca. 11th century)</b>
<b>nominative</b>	MŪRUS	* <i>muros</i>	<i>murs</i>
<b>accusative</b>	MŪRUM	* <i>muro</i>	<i>mur</i>
<b>ablative</b>	MŪRŌ		
<b>dative</b>			
<b>genitive</b>	MŪRĪ	* <i>muri</i>	

《표13》는 고전 라틴어로부터 민중 라틴어, 고대 프랑스어를 거치며 굴절이 점점 단순화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4개로 구분되던 고전라틴어의 굴절은 고대프랑스어에서 2개로 단순화되며, 현대프랑스어에 이르러서는 하나로 통용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언중의 지위에 따라 단순화의 경향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언중의 변화는 프랑스어가 단순

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사활용의 단순화와 더불어 규범으로서 정착된 pps의 의무적 용법을 초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 IV. 실증적 어휘기능으로서의 PPS

언어변화원리와 프랑스의 언중변화로 pps용법 변화의 원인을 파악했지만, 많은 체계 중 pps의 용법이 변화한 것은 pps의 의미 및 기능 속성과 관련 있다. 명시적 pps는 단순히 수·인칭을 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언어 단순화의 일환으로서 명시적 형태가 선호되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의미 형태 일치 원리를 기반으로 pps가 고유의 의미 및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 4.1 실증적 의미 및 기능

현대 연구자들의 관점을 따르면 pps는 접어 또는 동사의 일치요소로서 간주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사의 일치 접사는 의미를 갖지 않는 주어의 수·인칭 일치요소로서 문법 성분<sup>41)</sup>이다. 이러한 동사 접미사는 현대 프랑스어에서 형태가 단순화 되었다. pps의 경우, ‘주어’로서 의미를 가진 어휘소이다. pps가 의미적 요소이며 통사적 기능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41) 동사의 굴절이 수·인칭의 일치표지로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및 화자의 경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Szmrecsanyi (2009)에서 동남아시아의 영어 학습자의 코퍼스를 통해 동사와 명사에 문법 표지를 하지 않은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e.g. two shirt-, he say-, Kang Heng say-)

### 4.1.1 조응의 기능

프랑스어 pps는 조응의 용법이 있다. 조응은 단순히 앞에 나온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언급되어 한정된 바로 그 제 3의 존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앞에 나온 선행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된다.

다음의 예에서 pps의 조응의 용법을 사용하지 않은 예들을 살펴보겠다.

34)a. un homme est entré. Il portait un chapeau

b. un homme est entré. un homme portait un chapeau

(Karttunen, 1976)

34)의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34a)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앞의 명사구 주어 *un homme*를 그대로 주어로 받는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한편 pps *il*을 사용하면 문제없이 *il*이 선행된 주어 *un homme*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예를 통해 조응이 단순히 앞에서 언급된 언어 요소를 대신 받아 간략하게 하려는 경제성의 효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요소를 다시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1.2 사회적 기능 매개



pps는 문법적 중요성 이외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pps는 담화에서 사회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nous*의 경우 *je*와 상대방 혹은 어떤 그룹과 연대감을 구축하게 한다. 코퍼스 연구 결과 pps사용에 있어 사회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습이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인칭 복수형 *nous* 용법은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pps의 복수화 plurisation의 예를 통해 사회적 기능의 pps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Gougenheim(1970)이 제시한 사회적 기능의 *nous*의 예이다. Sganarelle은 Elvira의 하인인 Gusman에게 말한다. 실제로 Elvira만이 Don Juan의 희생자이지만 Gusman은 *nous*를 사용한다.

35)

<hé! mon pauvre Gusman, mon aim, tu ne sais pas encore, crois-moi, quel homme est don Juan>

<Je ne sais pas, le vrai, quel homme il peut être, s'il faut qu'il nous ait fait cette pertidie> ([Don juan] Molière)

위의 예는 *nous*의 구성요소가 *je*와 타인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 경우의 예시이다.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에 의해 화자는 *nous*를 사용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한다. 많은 대화에서 화자는 일인칭 단수 *je*로 대답하는 대신에 35)에서처럼 복수 *nous*를 사용해 대답한다. 인칭의 수를 대체하는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의도는 화자가 어떤 그룹과의 연대감과 결속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경우 연설에서 연대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nous*를 사용하기도 한다.

36) Ensembles, nous batirons une société meilleure

36) 정치인이 연설에서 한 말화로 실제적으로 말하는 화자는 일인칭 단수 *Je*이지만 대중과의 사회적 연대감을 드러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복수형 *nous*를 사용하였다.

### 4.1.3 주체성 실현 매개

*Je*는 단지 어떠한 명사표현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주체 자신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토된 예들을 살펴보자.

37) *Je m'appelle Pierre*

만약 *Je*가 *Pierre*라는 실체를 대신한 것이라면 다음의 문장이 가능해야 한다.

38). \**Pierre m'appelle Pierre*

*Je*를 *Pierre*로 대체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는 대명사 *Je*가 *Pierre*를 대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39) *Le locuteur de cet énoncé s'appelle Pierre*

환언문 조작에서 주어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한다. 자신이 현재 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인칭 대명사는 화자가 화자 자신을 지칭하며 화자 자신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Charaudeau(1992)에 따르면 *Je*의 의미는 발화문의 일부 혹은 전부가 화자에 관계된 것임을 가리킨다. 일인칭 대명사는 어떠한 생각, 욕구, 의견 등을 가진 주체로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개인의 발화 내에서 *Je*는 동일한 지시대상인 자아를 지시하며 바뀌지 않는다.

pps, 그 중 1인칭 대명사는 단순히 지시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했을 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Je*가 어떤 명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제안한 Frege(1967)의 이론을 발전시킨 Perry(1977)의 예를 보자.

40)

Rudolf는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기억을 잃었고 자신의 전기를 발견한다.  
글에서 자신 Rudolf에 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이 Rudolf인 것을  
모른다. 이 경우에 그가 I am hungry라고 말한다(Perry, 1977)

Frege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Rudolf is hungry”가 아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문장의 주어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어 자신의 정체성이다.

*Je*는 자신의 내재적 고유성인 주체성subjectivité을 지니고 있다.

*C'est dans et par le langage que l'homme se constitue comme sujet;*

*parce que le langage seul fonde en réalité, dans sa réalité qui est celle de l'être, le concept d' "ego"(Benvensite, 1966)<sup>42)</sup>*

Lyon(1982)에 따르면 주체성의 의미는 지금까지 언어에 관련해서 자연 언어에서 언어 동작주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과 믿음, 태도 등을 표현하는 속성이다. 주체성을 지닌 자아는 실존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칭하는 pps는 단순한 문법적 표지가 아닌 실제적 의미를 가진 요소이다.

*Cogito, ergo sum.*

*Je pense, donc je suis.*

인간은 생각하는 행위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Hintikka(1962)는 데카르트의 cogito는 언어수행자질을 가지며 따라서 데카르트의 논증은 생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성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인칭 *Je*의 생각하는 능력을 전제한다고 한다. 인칭대명사 *Je*를 매개로 한 주체의 반성성을 사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개별의 정체성은 개별의 언어사용으로 창조되고 재구조화된다.

*Or nous tenons que cette subjectivité, qu'on la pose en phénoménologie ou en psychologie, come on voudra, n'est que l'émergence dans l'être d'une propriété fondamentale du langage, Est "ego" qui dit "ego".*

*Nous trouvons là le fondement de la "subjectivité", qui se détermine*

---

42) 인간을 주체로 구성하는 것은 언어 내에서, 언어에 의해서이다. 언어 자체만이 실제로 존재의 현실이기도 한 바로 그 현실에서 'ego'의 개념이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par le statut linguistique de la "personne"(Benveniste, 1966)<sup>43)</sup>*

## 4.2 명시적 PPS 접어 속성 설명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 pps는 통사적으로 접어 속성을 보인다. pps는 동사에 의존적인 형태로 음성적으로 동시에 통사적으로 자율성autonomie이 일반 어휘소에 비해 약하다. 이러한 속성이 pps를 기능 범주로 한정한다. 하지만 pps를 통사적으로 논항의 지위를 가진 어휘소로 분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생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통사 층위에서 pps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 4.2.1 음성층위 접어

생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통사 관점에서 주어대명사는 의미역을 가지며 주어자리 [spec TP]에 위치하는 통사 실체이다. Kayne(1972)는 pps가 목적어 대명사와 동일한 통사속성을 보이지만 구분되는 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pps는 목적어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음성층위인 표층구조에서 접어의 위치이지만 심층구조에서는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들며 음성층위에서 접어화를 정당화 한다.

---

43) 우리는 주체성을 현상학에, 심리학에 위치시키든지 간에 언어행위에서 실체가 들어날 뿐이라고 주장한다. 'ego'라고 말하는 이가 'ego'이다. '인칭'의 언어적 지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주체성의 토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모든 접어들은 문장에서 실현될 때 특별한 순서규칙을 따르지만, 주어 대명사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41) a.\*Paul vous lui présnetera

b. Vous lui présenterez Paul

41a)의 3인칭 단수 간접목적 대명사 *lui*는 2인칭 복수 직접목적 대명사 *vous*에 선행해야 하는 제약을 따라야 한다. 한편 2인칭 복수 pps *vous*는 주어로서 항상 문장의 앞에 위치하며 순서규칙은 목적어 대명사에만 적용된다.

부정사의 경우 pps와 동사 사이에 오지만 목적어 대명사 및 다른 접어는 동사와 분리되지 못한다.

42) a. Il ne me parle pas

b.\*Il me ne parle pas

42)에서 보듯이, 부정사 *ne*는 pps *il*과 동사사이에 삽입이 가능하지만 목적어대명사 *me*와 동사를 분리하지 못한다.

Cardinaletti (1999)는 Kayne(1972,1983)이 통사접어와 음성접어를 구분한 것을 인용하며 통사에서 접어화된 목적어 접어와 음성층위에서 접어화된 주어접어를 비교하며 주어대명사는 최대투사이며 핵이 아니라고 한다. Couquaux(1986)도 Kayne(1983)의 음성접어를 따라 pps는 NP위치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며 pps가 명사주어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밝힌다.

홍용철(2005)에 따르면 보어 접어 대명사와는 달리 주어 접어 대명사는 부정법절 경계를 지나 이동할 수 있다. 이동은 주어-동사 일치 관계

와 격 점검과 관련된 이동으로 핵 이동이 아니라 논항 이동이다. 논항 이동은 구 요소 이동으로 pps를 논항 이동으로 본다는 것은 pps를 구 요소로 취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pps는 주어자리에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일반 명사와 pps는 동일한 자리를 경쟁한다.

#### 4.2.2 빈도에 의한 접어화

현대 연구자들이 pps를 문법소로 한정하는 근거는 pps의 접어적 성격에 기초한다. 1장에서 관찰한 접어의 기준으로 pps를 평가했을 때, 고대 프랑스어의 pps는 접어가 아닌 독립적 통사 요소이다. pps가 접어가 아닌 강세를 가진 문장성분으로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먼저,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현대 프랑스의 pps와 달리 명사 및 다른 대명사와 등위접속이 가능하다.

(i) 명사 혹은 다른 대명사와 등위접속이 가능하다.

43) *máis tu é ta máidnéé l'avez trubled*  
*mais tu et tes gens l'avez envahi*

(QLDR, III, XVIII; Dufresne, 1995)

43)에서 pps *tu*는 일반명사구 *ta máidnéé*와 등위접속사 *é*에 의해 등위접속되었다.

(ii) 부정 형용사 혹은 관계사에 의한 수식이 가능하다.

44) *tu meismes le sez bien*

(tu même le sais bien)

(Graal, 117; Dufresne, 1995)

55)의 pps *tu*는 형용사 *meismes*에 의해 수식되었다.

(iii)접어가 아닌 어휘항목에 의해 동사와 분리 가능하다.

45). que il ma honte prochaçast

(que il ma honte chercha) (Mort Artu, 109, 26; Dufresne, 1995)

45)의 pps *il*은 일반 명사구 *ma honte*가 동사 *prochacast*에 삽입되어 동사와 분리되었다.

(iv) 독립된 위치에 올 수 있다.

46) Et ce voil je que vos me tenés. - Jo? fai[t] li peres

et ce veut je que vous me tenait, - Je? dit le père

(Aucassin: X,55-57; kaiser, 2009)

46)에서 pps *je*는 문장의 앞이 아니며 동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관계사절을 이끄는 보문소 *que*앞에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현대 프랑스어와 달리 약세, 강세의 구분 없이 하나의 일련의 pps만을 가진다.

《표14》 고대 프랑스어 pps

1sg	je, jo, jou, gié
2sg	tu
3sg	il, ele



1pl	nos
2pl	vos
3pl	il, eles

명시적 주어대명사의 용법이 빈번해지며 고대 프랑스어의 주어대명사의 주격 형태는 고대 말이 되면서 점차 주어의 위치에만 나타나고 다른 형태의 주격인 강세형이 생겨난다.

47) Je iere tu, tu iers moi

Je suis toi, tu es moi (Moignet, 1965)

Dufresne(1995)는 pps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접어의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중세 프랑스어에서 pps는 음운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15세기 말부터 pps는 더 이상 등위 접속되지 못하며 항상 동사에 인접하면서 단어의 강세를 잃는다. 이것은 pps의 접어화를 야기한다. pps는 더 이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앞에서 축약이 의무적이지 않다.

pps가 접어가 되었음을 유추하게 하는 두 가지 변화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의문구조에서 단순 도치가 사라진다. 복합도치구조가 15C 중반 이후에 나타난다. 두 번째, 이 시기 이전의 텍스트에서 볼 수 없는 연음 -t-가 출현한다. 15C의 무강세 대명사는 접어대명사가 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고대프랑스어 시기에는 자율적 구성성분이던 주어 대명사가 15C에 이르러서는 접어 속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고대 프랑스어 pps와 현대 프랑스어 pps의 통사행태의 차이는 높은 사용빈도로 설명할 수 있다. Bybee&Thompson(1997)은 빈도수가 높은

항목일수록 음성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본다. pps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 층위에서 강세를 잃어 음성적 자율성이 결여된 접어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 4.2.3 북부 이탈리아 방언의 접어 비교

Kayne(1972)이 제시한 pps의 음성층위 접어에 따르면, pps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적 강세를 잃으면서 동사에 접어화되었을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 방언어<sup>44)</sup> 중 프랑스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언어들이다.

Rizzi(1986)와 Brandi&Cordin(1989)에 따르면 NID의 pps는 주어와 아닌 수·인칭 표지자와 비견되는 굴절 접사로서 이 언어는 영주어언어로 파악된다. Poletto(2000)은 NID의 주어접어와 주어 일치 굴절은 주어논항을 식별하며 일치 자질을 실현하지만 프랑스어의 경우는 해석 가능한 일치자질을 실현한다고 본다. 그는 pps는 NID에서 일치의 핵 위치를 차지하지만 프랑스어의 경우는 명사 주어와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먼저 연구자들의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 프랑스어는 *doubling*<sup>45)</sup>이 불가능 하지만 이탈리아어의 경우 가능하며 의무적이기도 하다.

---

44) Northern Italian Dialects, NID로 약칭한다.

45) 접어가 이중으로 나타나는 구조로 프랑스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에서는 가능하다. 다음은 clitic doubling 구조의 스페인어 예이다.

ex) Le di un regalo a mi madre

(To her I gave a gift to my mother)

예에서 보듯이 간접목적어인 a mi madre와 le가 이중으로 사용되었다.

48) a.\*Pierre il mange. (français moderne)

b. El Gianni et magna(trentin) (Hofherr2004)

48)에서 보듯이 명사구 주어 Pierre와 pps *il*이 한 문장에 동시에 올 수 없지만 NID인 *trentin*어의 경우 pps *et*가 명사구 주어 *El Gianni*와 한 문장에 사용가능하다.

(ii) pps는 수량한정사와 프랑스어에서 양립될 수 없지만 NID의 경우 양립가능하다.

49) a.\*Personne il n'a rien dit (français moderne)

b. Tut l'e capità de not (trentin)

tout il (s') est passé la nuit (Hofher, 2004)

49a)의 프랑스어 문장에서 pps *il*은 수량한정사 *personne*와 양립되지 않지만 NID의 경우 pps *l*은 수량한정사 *tut*와 양립가능하다.

(iii)프랑스에서 등위접속 되는 경우에도 NID의 경우 접어주어가 필수적이다

50) a. Il chante et danse (français moderne)

b.\*La canta e balla (trentin)

c. La canta e la balla (trentin) (Brandi et Cordin, 1989)

50a)에서 pps *il*은 동사 *chante*와 *danse*가 등위접속 되지만, NID의 경우 50c)에서처럼 pps *la*가 반복되어야 한다.

iv. 프랑스어에서 부정사는 동사와 pps 사이에 오지만 NID에서는 동사와 pps가 분리불가능하며 주어접어 앞에는 부정사가 위치한다.

51) a. To mama no vien

Ta mère ne vient pas

b. No la vien

Elle ne vient pas

(Polletto, 2000)

51)에서 부정사 *no*는 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주어접어 *la*가 있을 경우 *la* 앞에 위치한다.

Polletto(2000) 및 연구자들은 이러한 속성을 중심으로 현대 프랑스어는 영주어 언어가 아니지만 NID어인 trentin과 florentin은 영주어 언어로 파악하며, 주어접어를 주어일치표지 접사로 파악한다.

한편 Polletto(2000)는 NID의 주어접어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고대 시기에는 접어가 아닌 속성을 가졌다고 본다. 현대 NID어에는 부분적 인칭만 대명사가 사용되지만 15세기에는 모든 인칭을 가진 체계였다.

《표15》 Veneto(NID)의 15세기 pps

1sg	a/e
2sg	te/ti
3sg	el,la
1pl	a/e
2pl	a/e
3pl	I,le

르네상스 시기의 Veneto의 pps는 동사의 일치핵이 아니며 명사주어와 유사한 통사행태를 보인다. 다음은 Poletto(2000)가 제시한 증거들이다.

( i )등위접속이 가능하다.

52) El m'ha lagò le cavale (..) e si\_andò in là

He to me has left the mares and so\_went away (Poletto, 2000)

52)의 pps el은 동사 ha lagò와 andò를 등위접속한다.

( ii )부정사는 동사 사이에 위치한다.

53) E no podeva tior...

I not could take Poletto (Polett, 2000)

( iii )수량한정사와 양립 불가능하며 Wh-의문사 및 명사 주어와 양립 불가능하다.

54) a. Ognon vorà acomodarse de si bela stampa

Everyone will take for himself this beautiful picture

b. Chi volesse formar un teatro de bontae

Who would like to be a theater of goodness (Poletto, 2000)

이 시기에 pps는 주어 의미역을 실현하며 주어위치를 차지하는 논항이다. 17세기에 NID의 주어접어는 음성적 접어에서 통사적 접어로 변화한다. 현대 NID에서는 부분적 인칭주어를 가지며 단순히 수·일치 표지자로서 논항의 자격을 잃는다.

Poletto(2000)는 프랑스어와 Veneto어가 다른 발전을 가지게 된 이유로 르네상스 Veneto어는 수와 인칭별로 구분되는 일련의 주어 대명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에 수·인칭 굴절을 유지 했고 프랑스어는 완벽하게 구분된 pps를 가졌기 때문에 명사 주어와 동일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Givón(1976)은 대명사는 명사에 비해 음성적 강세가 약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대명사가 더 빠르게 음성적 손실을 받는데 이는 대명사가 문맥으로부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ps는 다른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문맥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어에서 pps의 음성·통사의 약화는 pps의 빈번한 사용과 더불어 문맥으로부터의 추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결론

우리는 다음의 두 논점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했다.

1. 현대 프랑스어 pps는 고대 프랑스어시기에 발생한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한 동사활용접사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까?
2. 현대 프랑스어에서의 의무적인 pps의 사용은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지 않을까?

우리는 먼저 공시적 관점에서 pps의 주요 속성을 파악했다. 먼저 pps의 통사 속성인 접어속성을 파악했다. pps는 통사적으로 접어로서 목적어 대명사와 유사하며 동시에 명사구 주어와는 구분되는 행태를 보인다. 다음으로 주어의 속성을 파악하며 일치표지와 영주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일치표지와 영주어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풍부한 일치조건이 영주어의 필수조건이 아님을 밝힌다.

2장에서는 pps 용법 변화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전통적 설명, 매개변인 변화 원리의 통사적 설명 및 선호도 원리에 의한 설명을 차례차례 확인해 보았다. 전통적 설명으로는 동사활용접사의 음가가 손실되어 그 대체적 수단으로 pps가 사용되었다는 Foulet(1935)의 설명, SV어순의 우세한 사용에 의해 pps가 사용되었다는 Franzen(1939) 설명과 V2리듬체계와 pps사용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Wartburg(1934.1963)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사차원에서 습득과 매개변인 변화로 설명한 Adams(1987), Roberts(1993), Vance(1997)의 설명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pps 용법 변화를 언어사용의 선호도에 의한 빈도에 의해 설명한 Sprouse&Vance(1999) 및 Lafond(2003)의 설명을 검토해 보았다. 그들은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에게 있어 명시적 pps가 영주어 형태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사용이 선호되어 명시적 pps가 우세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Sprouse&Vance(1999) 및 Lafond(2003)의 제안이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이 설명에서 결여된 부분을 발견하였다.

3장에서 언어변화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위의 제안의 결핍을 보충하고자 단순화, 사회언어학, 의미형태 일치 원리를 통해 pps 용법 변화 원인을 추정하였다. 한 단어의 형태로 주어와 동사를 표현하는 영주어 언어 체계인 고대프랑스어에서 보다 현대 언어형태로 주어를 요구하며 단순화된 굴절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의 의미 형태 일치 차원에서 더 쉬운 것으로 언어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언어 변화 요구도 동반한다. 프랑스의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계층의 성장 등으로 인해 언어 환경과 언종의 변화를 가졌다. pps 용법의 변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언종변화에 의해 유인되며 명시적 형태의 pps가 영주어 형태보다 선호됨으로써 pps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장에서 우리는 pps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적 층위에서 접어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며 실증적 어휘기능을 갖는 통사성분임을 확인한다. Chafe(197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사가 일치하는 것은 주어로서 굴절은 문법주어에 의해 구성된다. 주어로서 pps를 동사의 수·일치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관찰을 토대로 처음의 질문에 답을 한다. pps는 단순히 음성적 손실로 인한 대체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요성분인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며 대명사로서의 기능도 하는 어휘 성분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언어 보편변화양상인 단순화의 일환으로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휘소인 pps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 높은 사용빈도로 인하여 명시적 pps의 용법이 고정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본 연구에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pps용법 변화를 추



정하며 pps 속성 규명을 목표로 하였기에 인칭에 대한 개별 연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pps 인칭에 따른 개별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또한 pps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효율이 높고 단순하다는 가설을 사회적, 비교적 측면에서 정당화하였다. 다음 연구에서 인지적 측면과 언어습득의 차원에서 가설을 보충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nthony S. K. 1989, Reflexes of grammar in patterns of language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 : 199-24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ger, J. 1993, More evidenc for verbal agreement-marking in Colloquial French, In *Linguistic Perspectives on the Romance Languages*, W.J. Ashby, M.Mithun, G.Peressinotto&E. Raposo(eds.) , John Benjamins : 177-198
- \_\_\_\_\_. 1995, Les clitiques pronominaux en français parlé informel: une approche morphologique,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 Adams M. 1987, Old french to the theory of Pro-drop,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5 : 1-32
- Bybee J. et Thompson S. 1997, Three Frequency Effects in syntax, In *Proceedings of the Twenty-thir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General Session and Parasession on Pragmatics and Grammatical Structure*
- Benveniste, B.,C. 1984, Pronom et syntaxe : l'approche pronominale et son application au français, AELIA
- Benveniste.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Gallimard
- Borsredon, B. et M.-A. Morel, 2007-2008, Les pronoms personnels et le pronoms démonstratifs, In *L'information grammaticale* n.47
- Brandi, L.& P. Cordin 1983/1986, Subject clitics in two Italian dialect: a perspective on the null subject parameter, In *Journal of*

*Italian Linguistics* 8(2) : 1-24

- 
- \_\_\_\_\_ 1989, Two Italian dialects and the null subject parameter,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Jaeggli, O. & K. Safir (eds), Kluwer, Dordrecht.
- Brunot, F. et Bruneau, C. 1949, *Précis de gramm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Masson et Cie
- Cécile de cat. 2005, French subject clitics are not agreement markers, In *Lingua* 115,
- Chafe L.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Subject and Topic*, Charles N. Li (eds)
- Charaudeau, P. 2009, Identité sociale et identité discursive. Un jeu de miroir fondateur de l'activité langagière, In *Identités sociales et discursives du sujet parlant*, Charaudeau P. (dir.), L'Harmattan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ohen, M., 김동섭역, 1996 *언어 발달과 사회 변천사*, 어문학사
- Couquaux, D. 1986, les pronoms faibles sujet comme groupes nominaux», In *La grammaire modulaire*, M.Ronat (eds), Éditions de Minuit 9: 25-46.
- Côté, M., H. 2001, On the status of subject clitics in Child French. In *Research on Child Language Acquisition*, Almgren, M.et.al.(eds) Cascadilla Press
- Crousaz, D. et Shlonsky, I. 2003, The distribution of a subject Clitic

- pronoun in a Franco-Provencal dialect and the Licensing of Pro, *Linguistic inquiry* 34 N3, MIT Press: 413-442.
- Dufresne, M. 1995, Etude diachronique de la cliticisation des pronoms sujets à partir du français médiéval.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24 : 84-109.
- Dufresne, M. et Dupuis, F. 2008, Les constructions impersonnelles et l'expression du nombre en français médiéval, In *Évolutions en français: études de linguistique diachronique*, Benjamin Fagard et.al (eds), Bern
- Fouché, P. 1967 *MORPHOLOGIE HISTORIQUE DU FRANÇAIS*, Klincksieck
- Foulet, L. 1930/1965, *Petite syntaxe de l'ancien français*. Champion.  
 \_\_\_\_\_ 1936. L'extension de la forme oblique du pronom personnel en ancien français, *Romania* 62, 27-91
- Fuß, 2005, *The Rise of Agreement. A Formal Approach to the Syntax and Grammaticalization of Verbal Inflection*, J. Benjamins.
- Franzen, T. 1939, Etude sur la syntaxe des pronoms personnels sujets en ancien français, thèse doctorat, Almqvist et Wiksells
- Harris, A. C. & Lyle C. 1995, *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is, M. 1978, *The evolution of French syntax. A comparative approach*, Longman
- Hawkins, J.A. 2003,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s: Three General Principles, *The nature of explanation in Linguistic*

*Theory*, CSLI publications

- \_\_\_\_\_. 2004,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 OUP  
Oxford
- \_\_\_\_\_. 2009, An efficiency theory of complexity and related  
phenomena, In *Language Complexity as an Evolving Variable*,  
G. Sampson, D. Gil & P. Trudgill(eds), Oxford University  
Press: 252-268
- Heap, D. , Roberge, Y. 2001, Cliticisation et théorie syntaxique  
1971-2001, *Reveu québécoise de linguistique*30 n1: 63-90
- Henk C. et Riemsdijk V. 1999, *Clitics in the Languages of Europe*,  
Walter de Gruyter,
- Herman, J. 1990, *Du latin aux langues romanes : études de  
linguistique historique*, Tübingen, Niemeyer Verlag,
- Hirschbühler, P. 1995, Null subjects in verb-first embedded clauses in  
Philippe de Vigneulles'Cent Nouvelles Nouvelles. In *Clause  
Structure and Syntactic Change*, Battye, A.& Roberts, I.(eds),  
Oxford University Press : 257-291.
- Hofherr, P.C. 2004, les clitiques sujets du français et le parametre du  
sujet nul, *Langue française* 141 : 99-109
- Holmquist, J. 2012, Frequency rates and constraints on subject  
personal pronoun expression: Findings from the Puerto Rican  
highlands,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4 Issue2 :  
203-220
- Huang, Y. 1995, On null subjects and null objects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s* 33 : 1081-1123.

- Hulk, A. 1986. Subject clitics and the pro-drop parameter.' In *Going Romance*, Formal parameters of generative grammar II, P. Coopmans, J. Bordelois & B. Dotson-Smith(eds),Dordrecht, ICG Printing : 107-120
- Hulk, A. et Kemenade v. A. 1995, Verb second, pro-drop, functional projections and language change, In *Clause Structure and Syntactic Change*, Battye, A.& Roberts, I.(eds), Oxford University Press
- Hyams, N. 1989 subject parameter in language acquisition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aeggli, O. & K. Safir (eds), Kluwer,Dordrecht
- Ingham, R. 2008, L'ordre syntaxique V3 aux débuts du moyen français, In *Évolutions en français: études de linguistique diachronique*, Benjamin Fagard et.al (eds), Bern
- Jaeggli, O. et Safir, K. J. 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and Parametric Theory, The Null Subject Parameter, *Studies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5* Jaeggli, O., Safir, K. J.(eds), Kluwer, Dordrecht.
- Kaiser, G. 2009 Losing the null subject : a contrastive study of (Brazilian) Portuguese and(Medieval) French Null-subjects, In *expletives, and locatives in Romance* G.Kaiser & E.-M. Remberger(eds.). Konstanz : Universität, Fachbereich Sprachwissenschaft, : 131-156
- Kaiser, G. et Hack F. 2010, Sujets et sujets nuls en Romanche Actes du XXVe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et de

- Philologie Romanes 2007, Innsbruck, Maria Iliescu et,al.
- Kayne, R.S. 1972, Subject Inversion in French Interrogatives, In  
*Generative Studies in Romance Languages*, J. Casagrande &  
 B. Saciuk(eds), Newbury House Publishers : 70-126
- \_\_\_\_\_. 1975, *French syntax : the transformational cycle*, MIT  
 Press
- \_\_\_\_\_. 1983, Chains, Categories External to S, and French  
 Complex Inversion,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 : 109-37
- \_\_\_\_\_. 1989, Null subjects and clitic climbing.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Jaeggli, O. & K. Safir (eds),  
 Kluwer,Dordrecht: 239-261
- \_\_\_\_\_. 2000, *Parameters and universals*, Oxford University  
 Press
- Keenan L. E. 1976,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m, In  
*Subject and topic*, Charles N. Li (eds)
- Kleiber, G. 1991, Anaphore-deixis : où en sommes-nous ?,  
*L'information grammaticale* N.51
- Kleiber, G. 1994, Anaphores et pronoms, Duculot
- Kok, d. A. 1985, *La place du pronom personnel régime conjoint en  
 français : une étude diachronique*, Rodopi
- Lafond, L. 2003, Historical changes in Verb-second and null subjects  
 from old to modern french, In *Optimality Theory and  
 Language Change*, Deric Holt(eds) : 387-412
- Lambrech, K. 1981, *Topic, Antitopic and Verb Agreement in*

- Non-Standard French*, John Benjamins.
- Lemineux M. Dupuis F. 1995, The Locus of Verb Movement in Non-Asymmetric Verb-Second Languages: the Case of Middle French, In *Clause Structure and Syntactic Change*, Battye, A. & Roberts, I. (eds),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2006, Deixis, In the handbook of pragmatics, Horn, L., Ward, G. (eds), Wiley
- Lightfoot, D.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1, *Explanation in linguistics: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Longman
- \_\_\_\_\_. 1993, Why UG needs a learning theory: Triggering verb movement. In *Historical Linguistics: Problems and Perspectives*, C. Jones (eds), Longman: 190-214
- Lyons, J. 1982, Deixis and subjectivity: Loquor, ergo sum?, In *Speech, place, and action: Studies in deixis and related topics*. Robert J. Jarvella., Wolfgang Klein (eds.), John Wiley & Sons
- Maingueneau, D. 1998, *Analyser les textes de communication*, Nathan université
- Mannila, H. 2011, The diffusion of language change in real tim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dividuals and the time depth of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Vol.23. p. 1-43
- Marchello-Nizia, C. 1979,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aux XIV et XV siècles*, Bordas



- \_\_\_\_\_. 2001. Grammaticalisation et évolution des systèmes grammaticaux, In *Langue française* N°130, 2001. : 33-41
- Marchello-Nizia, C. et Picoche, J. 1991,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Nathan,
- Michel d. f. 1994, Pluralisation de la personne et variation pronominale, *Faits de langues* n.3
- Miller, P. et Monechesi, P. 2003, Les pronoms clitiques dans les langues romanes. In Les langues romanes: Problèmes de la phrase simple, Godard, D.(eds), Editions du CNRS
- Moravcsik, A. 2006, An introduction to syntactic theory, continuum
- Morel, M.-a. 1994, Les pronoms dans l'énoncé oral français, In *Faits de langues* n.3
- Mougeon R. et Beniak E. 1996, Social Class and language Variation in Bilingual Speech communities, In *Towards a Social Science of language Vol1:Variation and Change in Language and Society*, Gregory R. Guy, Feagin C.et al
- Picallo M.C. 2009 On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null expletive subjects, *Probus* 10, Issue 2 : 219 - 242
- Pintzuk, S. et Tsoulas, G. et Warner, A. 2000, *syntactic change: theory and Method diachronic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 Platzack, C. 1995, The loss of verb second in English and French, In *Clause structure and language change*, Battye, A.&Roberts,I. (eds), Oxford University Press
- Poletto, C., 1995,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Subject Clitics in

- North Eastern Italian Dialects, In *Clause structure and language change*, Battye, A.&Roberts, I. (eds), Oxford University Press
- Prévost P. 2009, *The acquisition of French*, John Benjamins Publishing
- Price,G 1966, Contribution à l'étude de la syntaxe des pronoms personnels en ancien français, *Romania* 87, 476-504
- OKU, S. 1994,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ffect, In *the Minimalist Approach The annual reports on cultural science* 43(1): 127-154
- Rinke, E. & Jurgen M. M. 2009, Subject inversion in Old French: Syntax and Information Structure.' In *expletives, and locatives in Romance* G.Kaiser&E.-M. Remberger(eds.). Konstanz: Arbeitspapier 123
- Rizzi, L. 2005, On some properties of subjects and topics. In *Proceedings of the XXX Incontro di Grammatica Generativa*, Bruge, L., Giusti, G., Munaro, N., Schweikert, W. et Turano, G. (eds), *Venezia*,
- Reboul, A. 2000, communication, fiction et expression de la subjectivité , In *langue française* N.128 : 9-29
- Roberts, I. 1993, *Verbs and Diachronic Syntax*, Kluwer, Dordrecht.
- \_\_\_\_\_ 1996. *Comparative Syntax*, Edward Arnold.
- \_\_\_\_\_. 2009, Varieties of French and the Null Subject Parameter, In *Parametric Variation*, Theresa Biberauer et.al.(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03-327

- Roberts, I. Roussou A. 2003, Syntactic change a minimalist approach to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to M. et Bergen K. B. 2013, The case of the missing pronouns: does mentally simulated perspective play a functional role in the comprehension of person? In *Cognition* 127 : p361-374
- Savoir, L. M. et M. R. Manzini 2010, Les clitiques sujets dans les variétés occitanes et francorovençales italiennes la syntaxe, In corpus 9
- Sportiche, D. 1998. Subject Clitics in French and Romance, Complex Inversion and Clitic Doubling, In *Studies in Comparative Syntax*, K. Johnson&I. Roberts(eds.), Kluwer Dordrecht
- Sprouse, R. and Vance, B. 1999, An explanation for the decline of Null pronouns in Certain germanic and romance Languages, In *Language creation and language change : creolization, diachrony, and development*, DeGraff,M., MIT Press
- Svenonius, P. 2001, *Subjects, Expletives, and the EPP*, Oxford University Press
- Szmrecsanyi, B. 2009, Typological parameters of intralingual variability:Grammatical analyticity versus syntheticity in varieties of English,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1 : 319-353
- Vance, B. 1995, On the decline of verb movement to Comp in Old and Middle French, In, *Clause Structure and Syntactic Change*, Battye, A.&Roberts, I.(ed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Syntactic change in Medieval French*, Kluwer,

Dordrecht.

- Vanelli, L. et Renzi, L. et Benincà, P. 1985, Typologie des pronoms sujets dans les langues romanes. In *Service des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Actes du XVIIème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et Philologie Romanes (Aix-en-Provence, 29 août - 3 septembre 1983). Vol. N° 3 : Linguistique descriptive :Phonétique, morphologie et lexique : 161-176*, Aix-en-Provence : Université de Provence.
- Wartburg, v.,W. 김현권역, 2000, 프랑스어 발달사, 한국문화사
- Wartburg, v.,W. 1934/1958, *Évolution et structure de la langue Française*, Editions A. Francke,
- Wartburg, v.,W. 김현권역, 1993 언어학의 문제와 방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Wartburg, v.,W. 1963 *Problèmes et méthodes de la linguist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Wimmer, C. 1991, De quelques emplois du pronom personnel chez La Bruyère, In *L'information grammaticale* N.48
- Zink, G. 1997, *Morphosyntaxe du pronom personnel (non réfléchi) en moyen français (XIVe-XVe siècles)*, Droz
- Zribi-hertz, A. 1996, *L'anaphore et les pronoms : une introduction a la syntaxe générative*,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김예숙 2004, 대명사의 기능에 관한 소고-지시와 대응-, 한국프랑스학 논집 제 45집
- 이창순 2000, 프랑스어사 개요, 신아사
- 최준영 2002, 영어의 V2 제약과 소멸 새한영어영문학 44권 2호 :

679-703

홍용철 2005, 프랑스어 접어 대명사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19

Résumé

L'étude sur les pronoms  
personnels sujets  
: pour une théorie du changement  
linguistique

Jeeyoung Yoon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présent travail a pour but de mettre en évidence les propriétés sémantiques et fonctionnelles du pronom personnel sujet des perspectives linguistiques variées : diachronie et synchronie; syntaxe et pragmatique.

Le français moderne exige l'emploi du pronom personnel sujet à la différence des langues romanes comme l'italien et l'espagnol. Lorsque le français a été dérivé du latin, les positions de l'objet et du verbe ont été modifiés mais pas le sujet. Bien que le pronom sujet et le nom soient utilisés le plus fréquemment pour remplacer la position du sujet, un assez grand nombre de chercheurs considèrent que le pronom personnel sujet est comparable avec l'affixe verbal, pas avec le nom. Ce point de vue est à la base de l'explication traditionnelle

concernant le changement de l'emploi du sujet et la propriété syntaxique du sujet.

Or, cet argument a le défaut comporte des points inexplicables; les accords verbaux et les sujets n'ont pas de corrélations nécessaires. En plus, on ne peut pas affirmer que le pronom personnel sujet soit un clitique en raison de cliticisation au niveau de la représentation.

Dans cette perspective, on peut poser deux questions sur le pronom personnel sujet du français: le pronom personnel sujet du français moderne est employé pour remplacer l'accord verbal?; son emploi n'a-t-il aucun sens ni fonction?

Pour répondre à ces questions, on observera les propriétés des pronoms personnels sujets en cherchant les théories du changement linguistique les principes universels des changements linguistiques. Plus précisément, nous mettrons d'abord en évidence quel facteur a joué un rôle dans le changement de l'emploi en considérant les propriétés des pronoms personnels sujets.

D'abord, on examinera le changement dans la perspective traditionnelle, syntaxique et optimale. On montrera que le principe optimal fournit une explication pertinente mais ce raisonnement ne vaut que si quelques points sont mis en évidence. Pour nous justifier, on déduira à partir de la théorie à ce sujet. L'emploi du pronom personnel sujet est l'un des tendances à la facilité et l'efficacité, car, quand le sens et la forme se correspondent, la facilité et l'efficacité sont augmentées. Cette tendance est provoquée par les changements de locuteurs. La poursuite de cette tendance en ancien français et moyen français est causée par le changement des structures sociales. Le pronom personnel sujet ne cliticize qu'au niveau de représentation à cause d'un emploi fréquent. Enfin on confirmera que le pronom

personnel sujet a un sens et une fonction qui lui sont propre aussi bien que le plan pragmatique que sur le plan de la subjectivité.

**keywords : pro-drop, French subject personal pronoun, language change, old French**

*Student Number : 2011-23086*